

2022-2023
RC추천도서



RC 필독서 50종을 새로 지정하며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신입생 여러분 !

코로나의 창궐로 인해 대학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미래캠퍼스 학생 여러분에게 마음의 양식인 좋은 책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난 2년전 우리대학 RC 필독서가 새로 지정되어 학술정보원 4층 고정 도서로 지정되었지만, 학생들이 이용할 때 불편한 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인문학과 사회·자연과학 등 주요 분야 고전이기는 하나 1학년 신입생의 수준에서는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 RC융합대학 RC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RC 마스터교수들의 도서 추천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책들을 새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022 RC 필독서는 모두 7개로 분류하여 50권을 구성했습니다. 1.사상(《예루살렘의 아이히만》등 8권), 2.사회과학(《행복의 기원》 등 8권), 3.자연과학(《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등 8권), 4.문학(《1984》8권), 5.인생에세이(《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 3권), 6.역사 문화(《백범일지》 등 7권), 7.기독교 (《소명》 등 8권) 등입니다. 이 책들은 다양한 장르에 걸쳐 넘나들면서 쉽게 독서 기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교수님 질문 있어요?”, “그 많은 책을 언제나 다 읽어요.” 이런 의문에 대한 정답은 없지요. 독서에는 정도(正道)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책표지부터 몇 장 넘겨 흥미로운 부분만 읽는 남독(濫讀)도 좋고요, 빠르게 읽는 속독(速讀)도 권장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책을 읽고 나서 책을 덮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독서 후에 짤막하게나마 느낌과 감상을 적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욱 좋은 것은 책을 읽고 난 후에 친구들과 토론하여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관점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 대학 RC 프로그램의 하나로 RC 추천도서 독후감 대회도 있으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뽐내도 좋습니다. 앞으로 신입생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생활관 하우스 등에 ‘2022 RC 문고’를 비치하여 이용하기 쉽게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3월 말이 되면, 어느 독립운동가의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자신의 몸을 헌신하여 세상의 정의를 실현한 안중근 의사이지요. 최근 소식에 의하면, 안의사의 유묵이 새로 기증되었다고 합니다. “지사인인 살신성인(志士仁人 殺身成仁)”, 풀어쓰면 “뜻 있는 사람과 어진 사람은 자신을 죽여 인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제 대학 신입생 여러분도 아무쪼록 자신의 뜻을 세우고 혼신의 힘을 다해 뜻을 이루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동서양의 고전과 명저 읽기로 미래의 삶을 설계해 봅시다!

2022년 3월 30일

연세대학교 RC융합대학장 왕현중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22학번 학생 여러분! 먼저 입학할 진심으로 축하하고 반갑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정작 캠퍼스에 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곧 이 문제가 해소되어 학교에서 만나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RC교육을 담당하시는 여덟 분의 마스터교수님들은 신학, 의학, 작업치료학, 국문학, 생명과학, 컴퓨터공학, 체육 그리고 음악까지 매우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들이십니다. 여기에 역사문화학을 전공하신 왕현중 학장님까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추천하여 50권의 필독서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들은 어느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영역의 고전에서 최근 발간된 신서까지 양서들로 엄선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음악과 책 중 무엇을 더 좋아합니까? 저의 경우는 오페라나 뮤지컬을 통해 문학의 세계를 접했습니다. 많은 음악 명작들이 문학을 기반으로 작곡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여러분에게 독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세계가 넓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이 세상을 다 가볼 수 없고, 그 많은 위인들을 다 만날 수도 없는 것을 책을 통해 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성경 번역은 지식의 해방이었고 확산이었으며, 인류 지성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로 독일은 신학, 철학, 그리고 음악의 원류가 되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베토벤, 슈만, 멘델스존... 등등이 모두 독일 작곡가인 것을 알겁니다. 이 작곡가들은 책을 많이 읽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베토벤은 20대 후반부터 청력장애가 생겨 듣는 것 대신 문학에 심취하여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음악명작을 쓰는 원동력을 얻습니다. 작곡가 멘델스존의 할아버지는 독일의 소크라테스라는 칭호를 얻는 학자였는데 그가 셰익스피어의 문학을 독일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손자 멘델스존이 읽을 수 있었고 덕분에 그 유명한 결혼행진곡을 작곡하는 동기를 얻습니다.

거듭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하며 대학생활 동안 많은 책을 통해 성공으로 가는 원동력을 얻고 지름길을 찾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30일

연세대학교 RC융합대학 RC부학장 이범석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강의: 나의 동양고전 독법



소유나 존재냐



호모 쿵푸스



군주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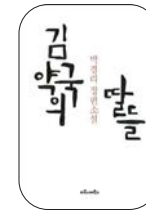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완전한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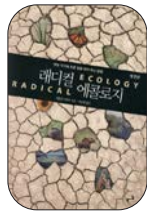
불편한 편의점



김약국의 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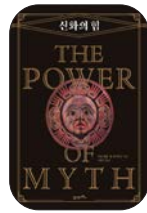
채식주의자



래디컬 에콜로지



공산당 선언



신화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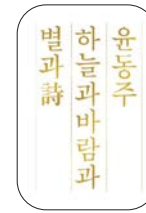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개인주의자 선언



그리스인 조르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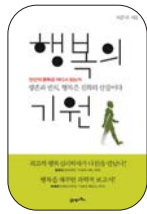
법륜스님의 행복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행의 이유



행복의 기원



개념의료



공간의 미래



공정하다는 착각



코로나 사피엔스 새로운 도약



사피엔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백범일지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음악과 권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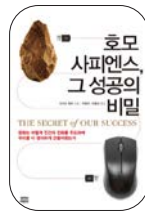
당신이 옳다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생각에 관한 생각



호모 사피엔스 그 성공의 비밀



오리진



베토벤의 삶과 음악세계



클래식을 뒤흔든 세계사



고백록



순전한 기독교



옥중서신: 저항과 복종



아웃라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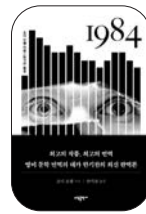
사람이 답이다



클라우스 슈바브의 제4차 산업혁명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



1984



사건의 기도



소명



언더우드의 마지막 메시지



아직도 가야 할 길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01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나 아렌트 | 한길사 | 2017 | 인문

940.5318092 Ei34 01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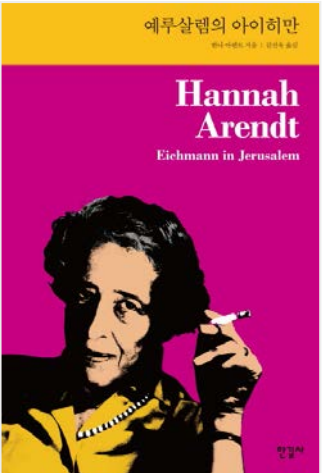
책 소개

인류의 위대한 지적 유산을 집대성한 「한길그레이트북스」 제81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아이히만의 재판에 대한 보고를 통해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저자는 유대인 학살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한 것을 바탕으로, 어떠한 이론이나 사상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아주 사실적인 어떤 것, 엄청난 규모로 자행된 악행의 현상을 나타내고자 했다.

저자는 아이히만의 사례를 통해 악의 평범성의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드러내며, 보편적 유대인 개념이 갖는 허상을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악의 평범성 개념으로 어떻게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타자중심적 윤리로 돌아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한국어판에는 포스트 모던적 정치사상의 입장에서 이 책이 어떻게 읽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중요한 논점들을 제공하는지를 조망한 정화열 교수의 해제를 함께 실었다.

저자 소개

1906년 10월 14일 독일 하노버 근교에서 무남독녀로 태어났다. 조숙하고 명석했던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반항하다 퇴학당했지만, 가정교육과 베를린 대학교 청강을 거쳐 1924년 마부르크 대학교에 진학했다. 그곳에서 하이데거에게 수학하지만 현상학의 창시자인 후설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실존철학자 야스퍼스의 지도 아래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1929)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29년 스테른(Gunter Stern, 1936년 이훈)과 결혼하여 베를린에 정착한다. 1933년 히틀러 정권의 출범으로 생존의 위기를 느낀 그녀는 파리로 이주하여 반나치 운동을 하며 지내던 중, 1940년 프랑스가 독일에 함락되자 미국행을 결심한다. 1941년 5월 두 번째 남편 블뢰허(Heinrich Blucher)와 함께 미국으로 망명, 뉴욕에 정착한 후 생을 마칠 때까지 미국시민으로 살았다. '전체주의의 기원'(1951)을 발표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인간의 조건'(1958)으로 정치철학자의 입지를 굳혔다. 그 후로도 '과거와 미래 사이'(1961), '혁명론'(1963) 등 많은 글을 발표했으며,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과정을 담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1963)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유, 의지, 판단을 다룬 '정신의 삶'중 '판단' 원고를 집필하던 1975년 12월 4일,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 목차

역자 서문_김선욱
악의 평범성과 타자 중심적 윤리_정화열

독자들에게 드리는 말

제1장 정의의 집
제2장 피고
제3장 유대인 문제 전문가
제4장 첫 번째 해결책
제5장 두 번째 해결책
제6장 최종 해결책
제7장 반제회의, 혹은 본디오 빌라도
제8장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의무
제9장 제국으로부터의 이송
제10장 서유럽으로부터의 이송
제11장 발칸 지역으로부터의 이송
제12장 중부 유럽으로부터의 이송
제13장 동부의 학살센터들
제14장 증거와 증언
제15장 판결, 항소, 처형

에필로그
후기

02 강의: 나의 동양고전 독법

신영복 | 돌베개 | 2004 | 인문철학

181.4 00474

책 소개

자본주의 체제의 물질 낭비와 인간의 소외, 황폐화된 인간관계를 근본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신영복의 동양고전 강의. 성공회대학교에서 '고전 강독'이란 강좌명으로 진행되었던 신영복 교수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고전 독법에서 과거에 대한 재조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당대 사회의 당면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전 독법의 전 과정에 관철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에서는 그런 저자의 관점이 반영된 고전 강독을 토대로 과거를 재조명하며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시경, 서경, 초사, 주역, 논어, 맹자, 노자, 장자, 묵자, 순자, 한비자, 불교, 신유학, 대학, 중용, 양명학을 관계론의 관점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예시 문장을 통해 관계론적 사고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저자 소개

저자 신영복은 1941년 경남 밀양에서 출생하여 1963~1965년 서울대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65~1966년 숙명여대 정경대 경제학과 강사를 거쳐 1966~1968년 육군사관학교 경제학과 교관으로 있던 중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20년 20일을 복역하다 1988년 8월 15일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했다. 1989년부터 성공회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한국사상사', '동양철학' 강의해왔으며 1998년 3월 13일 사면 복권되어 1998년 5월 1일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정식 임명되어 현재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1988), 『엽서』(1993), 『나무야 나무야』(1996), 『더불어 숲』1, 2(1998)가 있으며, 역서로는 『외국무역과 국민경제』(1966), 『사람아 아! 사람아』(1991), 『노신전』(1992, 공역), 『중국역대시가선집』(1994, 공역)이 있다.



■ 목차

01장 서론
02장 오래된 시와 언
03장 주역의 관계론
04장 논어의 인간관계
05장 맹자의 의
06장 노자의 도와 자연
07장 장자의 소요
08장 묵자의 겸애와 반전 평화
09장 순자, 유가와 법가 사이
10장 법가와 천하통일
11장 강의를 마치며

03 소유냐 존재냐

에리히 프롬 | 까치 | 2020 | 심리학

128 020거

책 소개

한 인간을 개체로 보느냐, 아니면 사회적 산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관점은 크게 달라진다. 이 책의 저자 에리히 프롬은 “개인과 사회”라는 문제에 접근하면서, 개체로서의 본연의 인간을 그 출발점으로 삼는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소유”와 “존재”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그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 「소유냐 존재냐」는, 특히 프롬의 사상세계에 관한 입문서로 적절한 책이다. 저자는 전문적인 학문적 자료를 피하면서 일목요연하고 읽기 쉽도록, 그가 이전의 저술들에서 한층 엄밀하게 (때로는 장황하게) 파고들었던 사유의 과정을 이 책 안에 요약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시각에서 간결하면서도 압축된 형태로 자신의 고백의 다양한 단편들을 종합해놓고 있다. 아마도 미래의 학자들은 프롬을-종교전쟁 말기의 저 위대한 휴머니스트처럼-용기 있는 이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한층 관용을 알고 도움을 주며 욕구를 모르고 평화를 사랑하는 인간이 되도록 기여한 저 제3의 힘의 대변자의 계열에 넣어 해석할 것이다. 그리고 휴머니즘적 항거파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1900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에리히 프롬은 사회학, 심리학, 철학을 공부했고, 1922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28년에서 1931년까지 프랑크푸르트 심리분석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다가 1934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예일 대학, 뉴 헤이븐 대학, 뉴욕 대학, 미시간 대학에서 강의했다. 1950-1965년에는 멕시코 국립대학의 의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에리히 프롬은 1980년 3월 18일 무탈토(티치노)에서 죽었다.



■ 목차

머리말

서론: 위대한 약속, 이행되지 않은 약속과 새로운 선택

제1부 소유와 존재의 차이에 대한 이해

1. 일반적 고찰
2. 일상적 경험에서의 소유와 존재
3.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그리고 예크하르트 수사의 저술에 나타난 소유와 존재

제2부 두 실존양식의 근본적 차이에 대한 분석

4. 소유적 실존양식
5. 존재적 실존양식
6. 소유와 존재의 그밖의 측면

제3부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사회

7. 종교, 성격, 그리고 사회
8. 인간의 변화를 위한 전제조건과 새로운 인간의 본질적 특성
9. 새로운 사회의 특성

루트 난다 안젠의 후기
역자 후기
참고 문헌
인명 색인

04 호모 쿵푸스

고미숙 | 북드라망 | 2012 | 글쓰기

371.30281 012고

책 소개

고전평론가 고미숙의 「달인」 제1권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 '공부'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공부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라는 슬로건으로 삼아 생로병사로 대표되는 생애의 전 사건을 공부거리로 삼아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할 새로운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돈이나 명예와 같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 공부 등은 진정한 공부가 아님을 일깨운다. 나아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능력을 지니도록 인도하고 있다. 질문의 크기만큼 삶의 크기를 결정함을 보여준다.

저자 소개

저자 고미숙은 고전평론가이다. 1960년 강원도 정선군 함백 출생. 가난한 광산촌에서 자랐지만, 공부를 지상 최고의 가치로 여기신 부모님 덕분에 박사학위까지 무사히 마쳤다. 대학원에서 훌륭한 스승과 선배들을 만나 공부의 기본기를 익혔고, 지난 10여 년간 지식인공동체 '수유+너머'에서 좋은 벗들을 통해 '삶의 기예'를 배웠다. 덕분에 강연과 집필로 밥벌이를 하고 있다. 2011년 10월부터 '수유+너머'를 떠나 감이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감이당은 '몸, 삶, 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인문의역학'을 탐구하는 '밴드형 커뮤니티'다. 그동안 낸 책으로는, 열하일기 삼종세트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삶과 문명의 눈부신 비전 열하일기』,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전2권)과 달인 삼종세트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 『사랑과 연애의 달인, 호모 에로스』, 『돈의 달인, 호모 커뮤니티』 그리고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이 영화를 보라』, 『임꺽정, 길 위에서 펼쳐지는 마이너리그의 향연』, 『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 『나의 운명 사용설명서: 사주명리학과 안티 오이디푸스』 등이 있다.



■ 목차

개정판 머리말 5

초판 머리말 7

프롤로그 _ '세 개의 절망과 하나의 희망'이 있는 풍경 16

1부 학교, 공부에 대한 거짓말을 펴리라 29

2부 고전에서 배우는 미래의 공부법 81

3부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학습하라
“공부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157

세태특독 214

에필로그 _ 공부해서 남 주자! 220

인물 찾아보기 231

05 군주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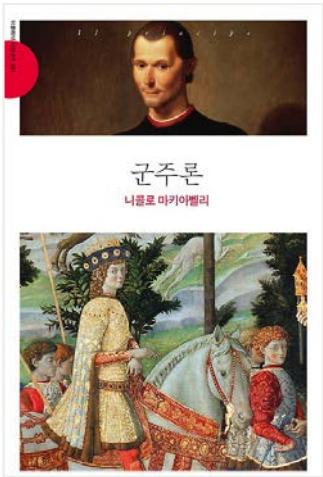
책 소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권모술수’로 오해받았던 책. ‘세상에 신의 섭리 구현 따위는 없고 권력쟁탈전의 승패만 있을 뿐’이라는 발언으로 교황청의 분노를 샀던 금서(禁書). 저자에게 ‘마키아벨리 같은 machiavellian(권모술수에 능한, 비열한)’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신조어까지 안긴 문제작.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음알음으로 다 찾아 읽었고, 지금은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내 삶의 주인’인 우리 모두의 필독서가 된 《군주론》! 아닌 게 아니라 《군주론》은 오해받기 딱 좋은 말들이 넘쳐난다. ‘인간은 은혜를 모르고, 인내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고, 기회주의적이며, 이익에 밝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그러니 지도자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여우처럼 속이고 사자처럼 공격하고 악숙을 어기고 악덕을 행해도 된다.’ 오해하지 않으려면 다음 말을 꼭 덧붙여 읽어야 한다. ‘지도자의 목표가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이라면!’ 사실 《군주론》은, 강한 리더의 강한 통치로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충직한 책인 것이다.

그렇다면 마키아벨리는 왜, 선뜻 입밖으로 꺼내 말하기 힘든 불편한 진실들을 쏟아내서 오해를 자초했을까? 그는 당시 통치력이 부재한 피렌체의 외교관으로서 풍전등화인 제 나라 신세를 구하려고 강대국 사이를 필사적으로 오가며, 냉정하기 그지없는 국제정치의 민낯을 낱알이 목격했다. 그러면서 체사레 보르자, 루이 12세, 막시밀리안 1세, 루도비코 스포르차 등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군주가 현실을 정확히 보지 않고 막연한 낙관이나 연민 혹은 ‘내가 선하고 옳다’는 자만으로 결정을 내릴 때 국가와 국민에게 큰 화가 닥치는 것을 수없이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본성을 ‘선악’으로 규정짓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며 ‘공동체에 바람직한 결과를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찰했고, 그 성찰을 《군주론》에 담아서 피렌체의 새 군주에게 바쳤다.

저자 소개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된 이론(마키아벨리즘)을 남길 만큼 탁월한 정치이론가. 하지만 현실에서는 강대국 파워게임의 한복판에서 휘둘리다가 추방된 힘없는 공무원. 자신의 복직을 간절히 원하며 새 군주에게 바친 《군주론》을 비롯해서 《로마사론》, 《피렌체사》, 희곡 《만드라골라》 등을 썼다.



■ 목차

저자 - 니콜로마키아벨리

출판사향 - 더클래식.2018.

목차

현사: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위대한 로렌초 데 메디치 전하께 올리는 글

제 1장 - 26장 본문

작품 해설 : 파렴치한 범죄자는 승리하지 못한 실패자인가?

16세기의 금서, 21세기의 필독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니콜라 마키아벨리 연보

06 래디컬 에콜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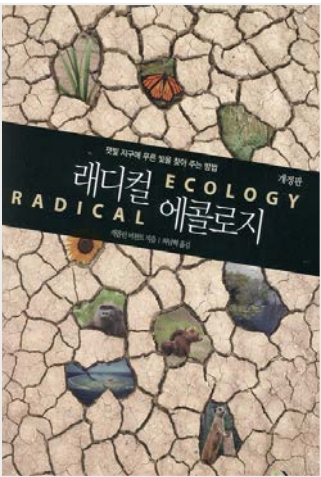
책 소개

생태학 입문서 개정판. 이 책은 환경 문제의 근원을 이루는 철학, 윤리학, 과학, 경제학을 비판하고, 생태 위기에 맞서는 전세계의 다양한 실천 운동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아울러 과학과 사회를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개정판에서 저자는 이상적인 생태주의자들의 사상들을 분석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두고 비교적 쉽게 환경과 자연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낸다.

저자 소개

캐롤린 머천트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분교 자연자원대학(CNR)의 '자원제도, 정책, 관리 전공'(RIPM) 교수. 전세계에 생태여성론(Ecofeminism)의 논의를 촉발시킨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생태여성주의자로서, 환경철학/사상, 환경윤리, 과학사/환경사, 여성의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학창 시절에는 생물학에 관심을 가졌고, 학부에서는 화학을, 대학원에서는 물리학과 과학사를 전공했으며, 60년대 이후 환경 문제에 눈을 뜨게 되면서 환경과 여성, 과학 문제를 역사적으로 고찰해왔다. 주요 저서로는 『지구를 보호하기: 여성과 환경』(1995), 『생태혁명: 뉴잉글랜드의 자연, 성, 과학』(1989), 『자연의 죽음: 여성, 생태, 과학혁명』(1980)이 있다.



■ 목차

옮긴이의 글 - 인류의 생태 위기, 어떻게 헤쳐 나갈까? ■ 9

감사의 글 ■ 16

서론 - 급진 생태론이란 무엇인가? ■ 18

I부 문제들

1장 전 지구적 생태 위기 ■ 38

2장 과학과 세계관 ■ 72

3장 환경 윤리와 정치적 갈등 ■ 104

II부 사상

4장 근본 생태론 ■ 140

5장 여성 생태론 ■ 176

6장 사회 생태론 ■ 212

III부 운동

7장 녹색 정치 ■ 246

8장 에코페미니즘 ■ 286

9장 반세계화와 지속 가능성 ■ 328

결론 - 급진적 생태 운동 ■ 364

부록 ■ 371

07 공산당 선언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 책세상 | 2002 | 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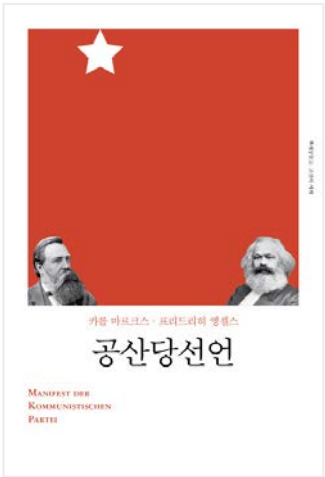
335.422 002 c.3

책 소개

마르크스를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이데올로기적 사상가로 만든 저서. 1847년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으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집필된 이 책은 사회 발전의 다양한 단계에서 계속되어온 계급 투쟁의 역사는 이제 전체 사회를 착취, 억압과 계급 투쟁에서 영구히 해방시키지 않고서는 피착취, 피억압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가 착취, 억압계급인 부르주아지에게서 해방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선언하고 있다.

저자 소개

프로이센의 트리어에서 7남매 중 첫째로 태어나 유대인 변호사인 아버지와 네덜란드 출신의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스물아홉 살부터 헤겔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그는 학문 연구의 방향을 '현실 속에서 이념을 찾는다'로 세우고, 청년 헤겔파와의 만남을 통해 급진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강단에 설 기회를 봉쇄당해 <라이니셰 차이퉁>의 편집장이 되었으나 프로이센의 검열이 점점 더 심해지자 편집장 자리에서 물러나 파리로 망명해 《독불연보》를 발간했다. 그러나 《독불연보》와 사회주의적 기고문으로 인해 파리에서도 추방당한 그는 브뤼셀로 이주하여 엥겔스와 함께 《독일 이데올로기》를 출간하고, 공산당연합의 당 강령인 《공산당선언》을 쓰게 된다. 불온한 인물로 낙인 찍혀 벨기에에서도 추방당한 그는 엥겔스와 함께 쾰른으로 돌아가 1848년 혁명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자 했으나 다시 추방당했다. 런던으로 망명한 그는 《정치경제학 비판》과 《자본론》을 집필하며 여생을 연구에 전념했다.



■ 목차

들어가는 말

제1장 공산당 선언

제2장 공산주의의 원칙

제3장 《공산당선언》의 서문들

해제 - 철학자 마르크스, 공산주의에서 공생주의로 | 이진우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옮긴이에 대하여

08 신화의 힘

조셉 캠벨 | 21세기북스 | 2017 | 역사/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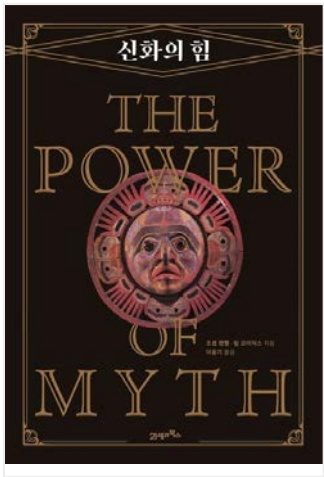
291.13 0177가

책 소개

<스타워즈>의 창조자 조지 루카스, 《다빈치 코드》의 원저자 댄 브라운 등 수많은 이야기꾼들의 정신적 스승, 조셉 캠벨의 사상과 철학이 유려하게 펼쳐지는 책 《신화의 힘》이 새로운 표지와 함께 개정판 도서로 발간됐다. 이 책은 우리 시대 최고의 신화학자인 조셉 캠벨과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터뷰 전문 저널리스트 빌 모이어스의 대담을 엮은 것이다. 그리스 신화를 비롯해 아메리카 인디언 신화와 인도 신화, 동아시아 사상과 영화 <스타워즈>까지 넘나들며 신화의 본질과 그 안에 녹아든 지혜를 발견한다. 신화를 통해 인간을 둘러싼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으로, 신화를 알아가는 과정은 결국 우리의 내면을 탐구하는 길임을 전한다.

저자 소개

미국의 신화종교학자이자 비교신화학자. 20세기 최고의 신화 해설자로 불린다. 어린 시절 북미대륙 원주민의 신화와 아더왕 전설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컬럼비아 대학과 파리 및 뮌헨의 여러 대학에서 세계 전역의 신화를 두루 섭렵했다. 1904년 뉴욕에서 태어난 그는 아메리칸 인디언에 관한 책을 즐겨 읽었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을 자주 방문하던 캠벨은 박물관의 한 코너에 있던 토tem 기둥에 특히 매료되었다. 그 뒤 1925년과 1927년에 컬럼비아 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파리 대학과 뮌헨 대학에서 중세 프랑스어와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안에는 소설가 존 스타인벡과 생물학자 에드 리케츠와 교류했다. 1934년에는 캔터베리 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사라 로렌스 대학의 문학부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았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는 스와미 니칼라난다를 도와 《우파니샤드》와 <스리 라마크리슈나의 복음>을 번역했다. 후일 방대한 정리 작업과 연구를 통해 《신의 가면》(전 4권)을 펴냈다. 프린스턴 대학 볼링겐 시리즈의 탁월한 편집자이기도 했던 캠벨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신화와 인생》《신화의 이미지》《신화의 세계》 등의 저서를 통해 왕성한 지적 연구 활동을 펼치다 1987년 세상을 떠났다.



■ 목차

■ 옮긴이의 말

■ 빌 모이어스의 서문

1. 신화와 현대 세계

2. 내면으로의 여행

3. 태초의 이야기꾼들

4. 희생과 천복

5. 영웅의 모험

6. 조화여신의 은혜

7. 사랑과 결혼 이야기

8. 영원의 가면

책 속으로

09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지금 우리를 위한 새로운 경제학 교과서

장하준 | 부키 | 2014 | 경제/경영

330.014나

책 소개

우리의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화두다. 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은 당장 없을 경우, 삶은 그야말로 비참해진다. 이러한 돈은 '경제'를 통해 순환되는데, 우리는 정작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를뿐더러 관심도 적다. 어려운 전문용어들도 이유겠지만, 세계 경제 위기가 내 월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평범한 일반인들이 굳이 경제학을 배워야 할까?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의 저자이자 케임브리지대 학 경제학과 교수인 장하준은 우리가 경제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경제는 경제학자들에게만 맡겨 두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열심히 일해도 빚만 늘어가는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제를 제대로 알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는 우리가 경제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정도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경제학 입문에 초대한다. 경제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 주요 경제학 이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어 무엇이 경제를 움직이고, 금융 위기는 왜 닥치는지, 우리 경제는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 경제 전반을 보는 눈을 키워 준다.

저자 소개

저자 장하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이래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워르달 상을,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에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2014년에는 영국의 정치 평론지 『프로스펙트(PROSPECT)』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사상가 50인' 중 9위에 오르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다리 건너차기』, 『꽤도나마 한국경제』, 『국가의 역할』 등이 있다. 그의 저작들은 36개 언어로 39개국에서 출간되었거나 출간될 예정이다.



■ 목차

-감사의 말

-프롤로그

1부 경제학에 익숙해지기

2부 경제학 사용하기

-에필로그

-주

-찾아보기

10 개인주의자 선언: 판사 문유석의 일상유감

문유석 | 문학동네 | 2015 | 인문교양

300.2.015나

책 소개

근대적인 의미에서 '개인'이란, 한 명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개인은 어떤 모습인가? 집단의 화합과 전진을 저해하는 배신자. 그러하기에 한국에서 개인으로 살아가기란 어렵고 외로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개인주의'야말로 르네상스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끈 엔진이었다.

『개인주의자 선언』은 현직 부장판사인 문유석이 진단한 한국사회의 국가주의적, 집단주의적 사회 문화를 신랄하게 파헤친 책이다. 저자는 가족주의 문화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수많은 개인들이 '내가 너무 별난 걸까' 하는 생각에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제물에 꺾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은 거꾸로 건 강하지 못한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인이 된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저자는 개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연대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래야만 진영논리만이 확연한 정치, 과잉된 교육열과 경쟁 그리고 공고한 학벌사회, 서열화된 행복의 기준 같은 고질적인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기주의'와 동의어로 오해받는 '개인주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닐까.

저자 소개

저자 문유석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소년 시절부터 좋아하는 책과 음악만 잔뜩 쌓아놓고 홀로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개인주의자였다. 요령껏 사회생활을 잘해나가는 편이지만 잔을 돌려가며 왁자지껄 먹고 마시는 회식자리를 힘들어하고, 눈치와 겉치레를 중요시하는 한국의 집단주의적 문화가 한국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판사가 스스로 개인주의자라고 하다니 뽀뽀스럽다고 여길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구에서 발전시킨 민주주의 법질서를 공부하고, 이를 적용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온 법관에게 개인주의는 전혀 어색한 말이 아니다. 개인주의는 유아적인 이기주의나 사회를 거부하는 고립주의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에는 공정한 룰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위해 다른 입장을 가진 타인들과 타협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믿는다. 집단 내 무한경쟁과 서열싸움 속에서 개인의 행복은 존중되지 않는 불행한 사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이민'만은 아닐 것이라고 믿으며, 감히 합리적 개인주의자들의 사회를 꿈꾼다. 지은 책으로 『판사유감』이 있다.



■ 목차

프롤로그_인간 혐오

1부 만국의 개인주의자여, 삶은 건 싫다고 말하라

2부 타인의 발견

3부 세상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기

에필로그_우리가 잃은 것들

11 행복의 기원

서은국 | 21세기북스 | 2014 | 교양심리

152.42 014가

책 소개

당신이 알고 있던 그것은 행복이 아니다
생존과 번식, 행복은 진화의 산물일 뿐

열렬히 사랑한 두 사람이 있었다. 둘은 결국 헤어졌고, 남은 것은 실연의 아픔이었다. 울며 지새는 밤이 얼마나 흘러야 가슴속 상처가 아물 수 있을까. 이별에는 ‘시간이 약’이라지만 그보다 빠른 약이 있다. ‘타이레놀’이다. 돌팔이 처방 같겠지만,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다.

진통제로 마음의 아픔을 줄일 수 있다는 논문이 최근 발표됐다. 심리학자 네이든 드왈은 심적 고통을 겪는 62명을 대상으로 21일간 실험을 했다. 한 그룹에게는 매일 타이레놀을 2알씩 복용하도록 했고, 또 한 그룹에게는 아무 약효가 없는 약을 처방했다(물론 양쪽의 약 성분은 미리 공개하지 않았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타이레놀 그룹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정도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다.

저자 소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졸업 후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에서 행복 분야 권위자인 에드 디너Ed Diener 교수의 지도를 받고,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학위 후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4년 뒤 이 대학에서 종신 교수직을 받았다. 저자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인용되는 행복 심리학자 중 한 명으로, 특히 행복과 문화 차가 전문 분야다. 그의 논문들은 OECD 행복 측정 보고서에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세계 100인의 행복 학자’에 선정되어 『세상의 모든 행복World Book of Happiness』에 기고했다. 모교인 연세대학교로 돌아와 느끼는 큰 보람은 바로 강의다. ‘행복의 과학’이라는 저자의 강의는 “이 수업을 들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강 대기자가 700명을 넘는다. 최근에는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 삼성경제연구소의 SERI CEO 강연 등을 통해 행복에 대한 ‘차가운’ 사실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



■ 목차

서문

chapter 1. 행복은 생각인가

chapter 2. 인간은 100% 동물이다

chapter 3. 다윈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행복

chapter 4. 동전탐지기로 찾는 행복

chapter 5. 결국은 사람이다

chapter 6.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

chapter 7. ‘사람쟁이’ 성격

chapter 8. 한국인의 행복

chapter 9. 오컴의 날로 행복을 베다

참고문헌

12 개념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박재영 | 청년의사 | 2013 | 사회학/의학

362.1 013고

책 소개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있는 의료 이야기 『개념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이 책은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의료이야기를 정리한 책이다. 한국의료의 특성과 그 특성들이 어떠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인지, 한국 의료의 강점과 그 임면에 숨어 있는 초라한 현실은 무엇인지 보건 의료 분야의 막후에 얼마나 흥미롭고 중요한 사연이 숨어 있는지 조목조목 파헤친다.

총 3부로 나뉜 이 책은 1부에선 지금 의료계가 처한 현실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는 어떠한 의료체계에 살고 있으며 의료민영화를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소개하며 2부에선 한국 건강보험의 탄생과정을 상세히 묘사하고 분해하여 오늘날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재적 의료쟁점의 기원과 주소를 알려준다. 3부에서는 미래 대응적 과제를 모색한다. 의료 패러다임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과 과학기술로 인해 바뀌는 의학의 미래, 의료분쟁 해결 방식 등 미래에 훨씬 중요해질 과제를 생각해 본다.

저자 소개

저자 박재영은 의사 출신의 저널리스트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료법윤리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마친 후 3년 동안 공중보건의로사로 일했고, 대한공중보건학협회의 회장을 지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신문 ‘청년의사’ 편집국장 또는 편집주간으로 일하고 있다. 연세의대와 아주의대 등에서 외래교수 또는 겸임교수 자격으로 인문사회의학 관련 내용을 강의한다. 한국의료윤리학회 상임이사, 인권의학연구소 이사를 맡고 있다. 평론집 《한국의료, 모든 변화는 진보다》, 장편소설 《종합병원2.0》 등 6권의 저서와 《청진기가 사라진다(공역)》, 《히포크라테스는 모른다》, 《차가운 의학, 따뜻한 의사》 등 5권의 역서를 펴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여러 매체의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 목차

추천사 선진의료 한국을 위한 아픈 처방_ 송호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5

머리말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처방전 9

제1장 한국의료의 오늘을 들여다보다

제2장 의료개혁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들

제3장 의료개혁이 쉽지 않은 이유

제4장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기까지

제5장 전국민의료보험 정착의 명암

제6장 의료대란의 본질 이해하기

제7장 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제8장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학의 미래

제9장 양보, 관용, 그리고 사회적 합의

제10장 시민이 똑똑해져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진다

결론: 원칙 지키기와 융통성 발휘하기

13 공간의 미래: 코로나가 가속화시킨 공간 변화

유현준 | 을유문화사 | 2021 | 인문교양

720.2 021가

책 소개

우리가 사는 공간은 그 안에 사는 인간의 변화에 맞춰 함께 변화해 왔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바뀌면서 공간의 변화 속도가 빨라졌고, 나아가던 방향도 조금 틀어졌다. 이 책은 집, 회사, 학교, 상업 시설, 공원, 지방 도시, 물류 터널 등 우리가 생활하고 있거나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공간의 가까운 미래를 살펴본다.

인간은 늘 세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려 한다. 지금처럼 큰 변화를 맞이했을 때에는 그런 요구가 더 클 수밖에 없고, 그에 발맞춰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이 예측을 내놓고 있다. 저자는 건축가로서 앞으로의 공간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려 시도했고, 이 책은 그 추측의 산물이다. 당연히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이 책의 이야기가 더해진다면 더 올바른 예측을 하고, 나아갈 방향을 잡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유현준은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및 (주)유현준건축사사무소(Hyunjoon Yoo Architects) 대표 건축사다. 하버드 대학교, MIT, 연세대학교에서 건축 공부를 했다. 하버드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 후 세계적인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 사무소에서 실무를 하였다. MIT 건축연구소 연구원 및 MIT 교환교수(2010)로 있었다. 2018 독일 디자인 어워드, 2017 시카고 아테나움 건축상, 아시아건축가협회 건축상, 아시아 시티스케이프 어워드, 서울시 건축상, 2013 올해의 건축 Best 7, 김수근건축상 프리뷰상, CNN 이 선정한 15 Seoul's Architectural Wonders, 2010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등 40여 개 상을 수상했다. 2011 한국현대건축작가 16인 아시아전 요코하마 전시, 2010 한국현대건축작가 17인 아시아전 상하이 전시를 가졌다. 또한 청와대 리모델링 자문과 대한민국 건축대전 심사위원을 비롯한 각종 위원을 역임했다. 재미 시절 작품으로는 《165 Charles Street Apartments, New York》등이 있고, 2005년 귀국 후 주요 작품으로는 〈청운대학교 도서관〉, 〈테마동물원 ZooZoo〉, 〈강북삼성병원 종합검진센터〉, 〈고리원자력 발전소 신사옥〉, 〈헤이리 촬영박물관〉, 〈여수엑스포 L기업관〉, 〈함께 일하는 재단 소셜인큐베이션센터〉, 〈거제도 연수원〉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모더니즘: 동서양문화의 하이브리드』, 『현대건축의 흐름』, 『52 9 12』가 있다.



■ 목차

여는 글: 전염병은 공간을 바꾸고, 공간은 사회를 바꾼다

- 1장. 마당 같은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
- 2장. 종교의 위기와 기회
- 3장. 천 명의 학생 천 개의 교육 과정
- 4장. 출근은 계속할 것인가
- 5장. 전염병은 도시를 해체시킬까
- 6장. 지상에 공원을 만들어 줄 자율주행 지하 물류 터널
- 7장. 그린벨트 보존과 남북통일을 위한 옛지시티
- 8장. 상업 시설의 위기와 진화
- 9장. 청년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 10장. 국토 균형 발전을 만드는 방법
- 11장. 공간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하기

닫는 글: 기후 변화와 전염병- 새로운 시대를 만들 기회

14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마이클 샌델 | 와이즈베리 | 2020 | 인문교양

306.0973 020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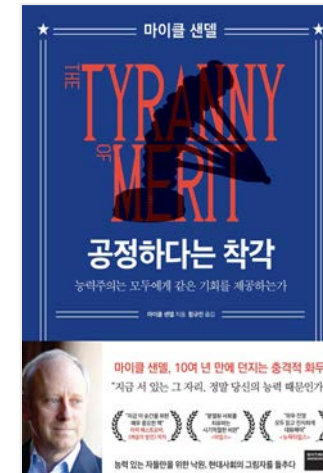
책 소개

또 다시 '공정'이 화두다. 언론 미디어를 통해, 부유층과 빈곤층, 청년과 장년, 정치인의 입을 통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 기업은 정규직·비정규직 논란에서 비롯된 '공정 채용'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고, 정치권에선 '공정경제3법'과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으로 떠들썩하다. 대통령은 "하나의 공정이 또 다른 불공정을 부르는 상황"을 언급하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렇듯 '공정'이라는 하나의 화두를 두고 각계각층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후 8년 만에 쓴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란 원제로 미국 현지에서 2020년 9월에 출간되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직역하면 '능력주의의 폭정: 과연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나?'다. 샌델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지 진지하게 되짚어본다.

저자 소개

2010년 이후 한국에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가 되었고,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1980년부터 하버드대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수업은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힌다. 샌델이 진행 중인 영국 BBC의 정치철학 토론 프로그램 〈위대한 철학자들〉 시리즈는 '철학적 아이디어의 이면을 탐구한다'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토론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27개국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비롯해,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완벽에 대한 반론》, 《마이클 샌델, 중국을 말하다》(공저) 등이 있다.



■ 목차

서론: 대학 입시와 능력주의

CHAPTER 1. 승자와 패자

CHAPTER 2. "선량하니까 위대하다" 능력주의 도덕의 짧은 역사

CHAPTER 3. 사회적 상송을 어떻게 말로 포장하는가

CHAPTER 4. 최후의 면책적 편견, 학력주의

CHAPTER 5. 성공의 윤리

CHAPTER 6. '인재 선별기'로서의 대학

CHAPTER 7. 일의 존엄성

결론: 능력, 그리고 공동선

15 코로나 사피엔스, 새로운 도약

김누리 외 | 인플루엔셜 | 2021 | 인문교양

303.485 021나

책 소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다. 우리는 대변혁을 이뤄낼 준비가 되었는가. 《코로나 사피엔스, 새로운 도약》은 '포스트 코로나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대주제 아래 대한민국 대표 석학들이 모여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의료 체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달라진 세계를 분석한 책이다. 김누리(라이피즘, 신인류의 이념), 장하준(새로운 성장동력), 홍기빈(체제의 대전환), 최배근(혁신의 조건), 홍종호(그린으로의 전환), 김준형(탈세계화의 가속), 김용섭(비대면의 역전), 이재갑(위드 코로나 시대), 여덟 명의 석학들은 팬데믹 위기의 실체를 분석하고 나아가 그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을 지혜를 선사한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발생했다.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4차 산업혁명이 일상에 단단히 뿌리내렸고, 탄소 경제의 종말이 곧 임박했음을 실감하고 있다. 허술한 복지제도는 민낯을 드러내며 근본적인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고, 경쟁과 효율만 좇는 사회에서는 안전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없음을 뼈저리게 체감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초유의 사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확실한 건 과거의 경제 체제와 부양책, 가치관에 기대어서는 앞으로 물려줄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더 나은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질서에서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코로나 사피엔스, 새로운 도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새로운 질서와 그에 따른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명료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저자 소개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와 동 대학원 독일유럽학과 교수. 독일 유럽연구센터 소장, 한국 독어독문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 독일 브레멘 대학에서 독문학을 공부했고, 독일 현대 소설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의 소장을 맡아 학술 및 교육, 문화 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저서로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알레고리와 역사: 쿤터 그라스의 문학과 사상》, '통일 독일을 말한다' 3부작 등이 있다.



■ 목차

들어가는 글_ 코로나19는 왜 지금 우리에게 왔는가

1장 라이피즘, 신인류의 이념_ 김누리

2장 새로운 성장동력_ 장하준

3장 체제의 대전환_ 홍기빈

4장 혁신의 조건_ 최배근

5장 그린으로의 전환_ 홍종호

6장 탈세계화의 가속_ 김준형

7장 비대면의 역전_ 김용섭

8장 위드 코로나 시대_ 이재갑

16 당신이 옳다: 정혜신의 걱정심리학

정혜신 | 해냄출판사 | 2018 | 교양심리

150.2 018가

책 소개

30여 년간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며 1만2천여 명의 속마음을 듣고 나누었고, 《당신으로 충분하다》, 《정혜신의 사람 공부》 등의 책을 통해 독자들과 소통해 온 정혜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있음을 확인한 후 누구라도 심리적 CPR의 행동지침을 배울 수 있게 안내하고자 펴낸 『당신이 옳다』.

십 수 년 동안 거리의 치유자로서 국가폭력 피해자를 비롯,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에 힘써온 저자는 공감이야말로 어떤 치료제나 전문가의 고스펙 자격증보다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되살리는 힘을 발휘함을 확인했고, 이 책에 그동안 파악한 사람의 마음에 대한 통찰과 치유 내공을 밀도 높게 담아냈다.

1장에서는 존재의 개별성을 무시하는 사회적 시선과 환경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아픈 이유를 들여다보고, 2장에서는 우울증 등 진단이 남발되고 일상이 외주화 되는 현실을 직시하며 심리적 CPR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공감에 대해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공감의 방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사람은 모두가 개별적 존재임을 환기시키고, 공감의 정확성을 높이는 경계 짓기를 제안하고, 5장에서는 사랑에 대한 욕구, 콤플렉스, 집단 사고 등 진정한 치유를 방해하는 공감의 허들을 짚어주며, 6장에서는 존재를 살리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유념해야 할 실천 치유 팁을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보여준다.

저자 소개

30여 년간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며 1만2천여 명의 속마음을 듣고 나누었다. 최근 15년은 정치인, 법조인, 기업 CEO와 임원 등 자타가 인정하는 성공한 이들의 속마음을 나누는 일을 했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라우마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함께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만든 재단 '진실의 힘'에서 집단상담을 이끌었고,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심리치유공간 '와락'을 만들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안산으로 이주해 '치유공간 이웃'을 만들고 참사 피해자들의 치유에 힘썼다. 또한 서울시와 함께하는 힐링프로젝트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감의 힘을 전파하고 있다.



■ 목차

읽는 이에게: 내 아내의 모든 것

프롤로그: 소박한 집밥 같은 치유, 걱정심리학

1장 왜 우리는 아픈가

2장 심리적 CPR_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

3장 공감_ 빠르고 정확하게 마음을 움직이는 힘

4장 경계 세우기_ 나와 너를 동시에 보호해야

5장 공감의 허들 넘기_ 진정한 치유를 가로막는 방해물

6장 공감 실천_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에필로그: 삶의 한복판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

17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리사 펠드먼 배럿 | 더퀘스트 | 2021 | 교양과학

612.82 021나

책 소개

왜 뇌는 당신의 뇌처럼 진화했을까? 누가 봐도 확실한 답은 ‘생각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흔히 뇌가 일종의 ‘상향 진보’ 방식으로 진화했다고 추정한다. 말하자면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진화해서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는 어떤 동물들보다도 더 정교하게 설계된 ‘생각하는 뇌’인 인간의 뇌가 있다는 식으로 가정한다. 결국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최고의 힘이니 말이다. 그렇지 않나? 하지만 이 명백한 답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우리 뇌가 생각하기 위해 진화했다는 발상은 인간 본성에 대한 엄청난 오해들의 근원이 되어왔다. 그 소중한 믿음을 내려놓았다면, 당신은 뇌를 이해하는 길에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우리 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종류의 생명체인지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다가간 것이다.

저자 소개

심리학 및 신경과학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과학자 중 상위 1퍼센트에 속하는 신경과학자다. 노스이스턴대학교의 석좌교수이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도 재직 중이며, 하버드의대 ‘법·뇌·행동센터The Center for Law, Brain & Behavior’의 수석과학책임자CSO다. 2019년 신경과학 분야에서 구겐하임 펠로우십Guggenheim Fellowship을 받았으며, 뇌와 감정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미국국립보건원 파이어니어상NIH Director’s Pioneer Award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있으며 《정서 편람》《정서의 심리적 구축》《맥락 속 마음》《정서와 의식》 등의 학술서를 공저했다.



■ 목차

- 1/2강 아주 짧은 진화학 수업
뇌는 생각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
- 1강 오래된 허구를 넘어서
뇌는 하나다, 삼위일체의 뇌는 버려라
- 2강 인간의 뇌를 만드는 방식
뇌는 ‘네트워크’다
- 3강 인간의 양육에 관하여
어린 뇌는 스스로 세계와 연결한다
- 4강 당신보다 뇌가 먼저 안다
뇌는 당신의 거의 모든 행동을 예측한다
- 5강 타인의 뇌라는 축복 또는 지옥
당신의 뇌는 보이지 않게
다른 뇌와 함께 움직인다
- 6강 다양성이 표준이다
인간의 뇌는
다양한 종류의 마음을 만든다
- 7강 뇌 속에 존재하는 세계
인간의 뇌는 현실을 만들어낸다
- 에필로그 / 옮긴이의 말 / 찾아보기

18 생각에 관한 생각: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생각의 반란

대니얼 가너먼 | 김영사 | 2018 | 경제/경영

153.42 018규

책 소개

새로운 인간학의 지평을 연 현대의 고전, 행동경제학과 인지심리학의 바이블 『생각에 관한 생각』. 21세기 들어 분야를 막론한 여러 학문에서는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성에 대한 언급과 주장이 강세를 보였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주변 환경과 운을 과소평가하는 인간의 특성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소개하는 책들이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주장과 저서의 기본 원칙은 바로 이 책에서 설명하는 카너먼의 풍부한 연구 결과들에 기초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가 고전경제학의 아버지라면, 대니얼 카너먼은 현대경제학의 대부이다!”라는 언론의 극찬을 받은 독보적 지성인, 현존하는 거장의 역작이지만 그를 접하는 데 있어 너무 겁만 먹지는 말자. 쉽지는 않을지 몰라도 접근이 불가할 정도로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 책은 아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소소한 곱셈 문제에서부터 그림 문제, 도형 문제, 그리고 어려운 살인 사건에 관련된 복잡한 문제와 대도시 택시 뺑소니 사건 등 수많은 퀴즈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가능하면 하나씩 시간을 들여 풀어보고 생각해보라.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 퀴즈들은 모두 위대한 사회과학 이론의 토대가 되는 연구의 시발점이다.

석학의 연구 결과에 도전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고 찬찬히 읽어보라. 생경했던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용어와 개념이 친숙하게 다가올 것이고, 한 몸에서 따로 놀던 두 개의 자아 중 자신이 어느 쪽을 편애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고, 더욱 더 바람직한 자아 형성에 힘쓰게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사상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천재 심리학자. 고전경제학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엎은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심리학과 경제학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의 비합리성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경제체제의 이면을 발견한 독보적 지성인. 대니얼 카너먼은 예루살렘 히브리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뒤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캠퍼스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시건대학과 케임브리지대학 응용심리연구소 과학자, 인지연구센터Center for Cognitive Studies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하버드대학에서 심리학을 강의했다. 현재 프린스턴대학 명예교수이며, 비즈니스와 사회공헌 분야 컨설팅 회사인 ‘더 그레이티스트 굿The Greatest Good’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 목차

- 추천사
- 머리말
- 1부 두 시스템
- 2부 어림짐작과 편향
- 3부 과신
- 4부 선택
- 5부 두 자아
- 결론
- 부록 A: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판단
- 부록 B: 선택, 가치, 틀짜기
- 주
- 감사의 말
- 찾아보기

호모 사피엔스, 그 성공의 비밀: 문화는 어떻게 19 인간의 진화를 주도하며 우리를 더 영리하게 만들어왔는가

조지프 헨릭 | 부리와이파이 | 2019 | 교양과학

599.938 019가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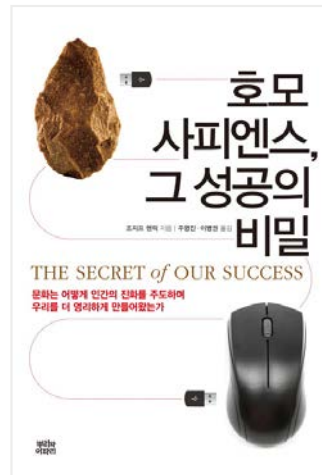
자, 침팬지와 인간의 대결이다. 나무를 타거나 트럭을 끄는 시험은 피하고, 라이프치히에 있는 진화인류학연구소의 헤르만, 토마셀로 등이 침팬지 106마리, 독일 어린이 105명, 오랑우탄 32마리를 맞붙인 38가지 인지능력 대결부터 살펴보자. 공간, 수량, 인과, 사회적 학습과 관련된 능력을 파악하는 하위검사로 구성된 이 대결의 결과는, 두 살 반 먹은 아이들은 훨씬 큰 뇌를 지녔음에도 침팬지와 본질적으로 아무 차이도 없다는 걸 보여준다. 100점 대 0점이라는 극단적 대조를 보인 '사회적 학습' 검사를 빼면 말이다. 침팬지와 오랑우탄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더 원초적이고 종합적인 대결: 당신을 포함한 직장인 동료 40명과 중앙아메리카 코스타리카의 꼬리감는원숭이 40마리를 아무것도 없이 아프리카의 외딴 열대림에 던져놓고 2년 동안 어느 쪽이 더 많이 살아남는가를 겨룬다. 누가 이길까? 커다란 뇌와 흘러넘치는 자만심을 가진 당신네가, 깨져도 형편없이 깨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 종이 진화한 대륙인 아프리카에서 수렵채취인으로 살아남는 데에도 보탬이 안 된다면, 그 커다란 뇌는 어디에 쓰자는 걸까? 툰드라에서 사막까지, 지구상의 온갖 다양한 환경으로 퍼져나간 인간의 생태적 성공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말인가?

그전에 잠깐! 혹시 침팬지가 이왕 겨룬 김에 레슬링이나 한판 하자고 나오거든, 당신은 그거 말고 바늘구멍에 실 꿰기(또는 바느질 시험?), 강속구 던지기, 오래 달리기 같은 종목을 제안하는 게 좋다.

저자 소개

하버드 대학의 인간진화생물학 교수다. 동시에 문화·인지·공진화 분야 캐나다 석좌연구자 Canada Research Chair 자격으로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에서 심리학과와 경제학과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공저로 『왜 인간은 협력하는가』와 『사회규범 실험』이 있다.



목차

머리말

- 제1장 수수께끼 같은 영장류
- 제2장 지능은 답이 아니다
- 제3장 길 잃은 유럽인 탐험가들
- 제4장 문화적인 종을 만드는 법
- 제5장 커다란 뇌가 무슨 소용? 혹은, 문화는 어떻게 우리를 겁쟁으로 만들었는가?
- 제6장 왜 어떤 사람들은 눈이 파랗까
- 제7장 신뢰의 기원에 관하여
- 제8장 명망과 권력, 그리고 폐경
- 제9장 외척과 근친상간 금지, 그리고 의례
- 제10장 집단 간 경쟁이 문화적 진화의 틀을 형성한다
- 제11장 자기길들이기
- 제12장 우리의 집단두뇌
- 제13장 규칙이 있는 의사소통 도구
- 제14장 문화에 동화된 뇌와 명예를 아는 호르몬
- 제15장 우리가 루비콘강을 건넜을 때
- 제16장 왜 우리였을까?
- 제17장 새로운 종류의 동물

후주/ 참고문헌/ 도판 출처/ 찾아보기

20 오리진: 지구는 어떻게 우리를 만들었는가

루이스 다트넬 | 흐름출판 | 2020 | 교양과학

599.938 020교

책 소개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부분 소수의 지도자와 집단의 대이동 그리고 결정적인 전쟁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행성, 지구 자체다. 과연 인류의 역사는 오롯이 인류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일까? 지구는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을까? 『오리진』이 책의 질문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영국 우주국의 과학자 루이스 다트넬 교수는 우리를 수십억 년에 걸친 지구의 과거로 데려감으로써 인류의 궁극적인 기원에 대해 들려준다. 판의 활동과 기후 변화, 대기 순환과 해류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지구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져 왔다. 최초 하나의 대륙을 조각낸 지질학적 힘들은 동아프리카에서 우리의 진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정작 인류의 다재다능함과 지능은 지구의 자연환경을 만들어낸 우주의 주기가 낳은 산물이다. 그리스의 독특한 산악 지형은 민주주의의 탄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오늘날 미국인의 투표 패턴이 먼 옛날의 해저 지형을 따라 나타나는 이유는? 히말라야산맥은 지구의 궤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빙하기의 종식은 영국 제도의 생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역사가 과학이 되는 시점에 이를 때, 비로소 우리는 현대 세계의 기반을 이루고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광대한 연결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책은 지구라는 행성과 그 안에서 생존하고 진화해 온 인류가 만들어낸 놀라운 면서도 환상적인 앙상블에 관한 '진짜' 이야기다.

저자 소개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는 교수로 일하고 있다. 과학에 관한 글로 여러 차례 상을 받았으며, 『가디언』, 『타임스』, 『뉴사이언티스트』에 기고하고 있다. 텔레비전을 위한 글도 썼으며, BBC의 〈호라이즌〉, 〈스카이 뉴스〉, 〈우주의 신비〉, 〈스타게이징 라이프〉, 〈밤하늘〉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지칠 줄 모르는 대중 과학 전도사인 다트넬의 전작 중에는 전 세계 16개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인 『지식: 인류 최후 생존자를 위한 리부팅 안내서』가 있다.



목차

제1장 ·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제2장 · 사피엔스는 왜 이동을 시작했는가

제3장 · 인류 진화를 도운 생물지리학적 환경

제4장 · 신드바드의 세계

제5장 · 도시의 풍경을 결정지은 재료

제6장 · 금속은 어떻게 인류 사회를 바꾸었는가

제7장 · 기후가 만들어낸 실크로드의 지도

제8장 · 해류와 바람, 인류의 대탐험 시대를 열다

제9장 · 석탄과 석유가 바꾼 것은 인류의 문화

21 아웃라이어

말콤글래드웰 | 김영사 | 2009 | 자기계발

302 009가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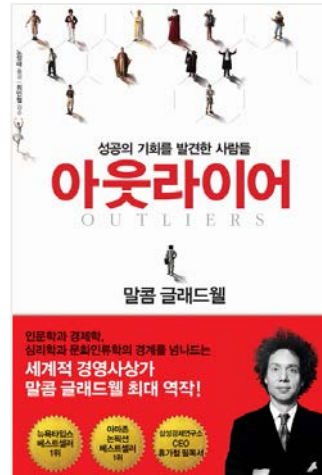
이 책은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티핑포인트』 『블링크』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의 저서이다.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 프로그래밍 귀재 빌 조이, 록의 전설 비틀스 등 이 시대 아웃라이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밀을 파헤친다. 그 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성공의 색다른 측면을 제시한다.

제목은 '아웃라이어'는 본체에서 분리되거나 따로 분류되어 있는 물건, 또는 표본 중 다른 대상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통계적 관측치를 의미한다. 이 책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범주를 뛰어넘은 특별한 사람, 즉 천재를 뜻한다. 본문은 21세기 성공의 새로운 모델로 이 아웃라이어를 주목하며 성공과 부의 비밀을 밝힌다.

1부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흔해 빠진 최루성 신파극이나 평범한 사람이 감히 접근접할 수 없는 영웅들의 무용담 대신, 성공하는 사람들이 누렸던 행운과 그들이 태어난 시대적 배경 및 세대 등의 요인을 객관적으로 살펴본다. 2부에서는 개인은 결국 사회라는 문화적 테두리 안에서 성공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저자 소개

세계적 경영사상가이자, 필력 넘치는 베스트셀러 저술가. 영국에서 태어나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자랐고, 토론토 대학교와 트리니티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했다.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워싱턴 포스트》의 경제부/과학부 기자, 뉴욕 지부장을 지냈다. 1996년부터 《뉴욕커》의 기고 작가로 일해왔다. 1999년, 이 시대 최고의 마케터 중 한 명인 론 포페일(Ron Popeil)에 대한 기사로 '내셔널 매거진 어워드'를 탔다. 2005년 <타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2008년 <월스트리트저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사상가 10인'에 선정되었다. 저서 『티핑포인트』(2000)와 『블링크-첫 2초의 힘』(2005)은 모두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다.



■ 목차

감수사_성공에 대한 혁명적 담론, 신화를 뒤집는 깊이 있는 통찰

프롤로그_로제토의 수수께끼
"그들은 제 수명을 다하고 늙어서 죽었다. 그게 전부이다."

- 1장 마태복음 효과
- 2장 1만 시간의 법칙
- 3장 위기에 빠진 천재들
- 4장 행운과 오픈하이머의 결정적 차이
- 5장 조셉플룸에게 배우는 세 가지 교훈
- 6장 켄터키주 할란의 미스터리
- 7장 비행기 추락에 담긴 문화적 비밀
- 7장 비행기 추락에 담긴 문화적 비밀
- 9장 마리티에게 찾아온 놀라운 기회

에필로그_자메이카에서 온 이야기

역사후기_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을 가르는 그 작은 차이

참고문헌

찾아보기

(인공지능의 미래) 사람이 답이다 22 : 인간은 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할 수 없는 것

선택유 | 리더리드출판 | 2017 | 경제/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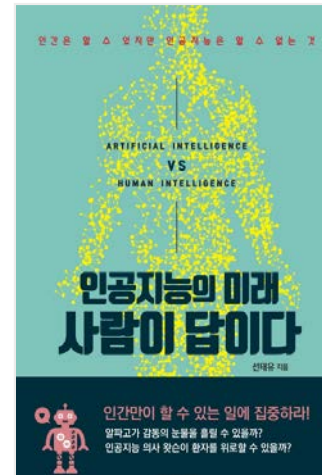
303.49 017다

책 소개

컴퓨터가 인간의 지력을 대신하는 영역에서 활약하는 분야는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그 컴퓨터의 뒤에는 인간이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계산과 같이 해답이 있는 분야나 힘을 쓰는 일,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일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앞설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인 부분과 감정을 다루는 일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자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경험하며, 스스로 느끼는 것 등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특성화하면 인공지능으로 많은 것들이 대체되는 미래에도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인공지능의 미래 사람이 답이다]은 인간의 일자리 90%가 AI로 대체되는 미래에 기계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창의적, 예술적, 감성적인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살아남는 법, 인간을 위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법에 대해 제시한다.

저자 소개

컴퓨터과학을 전공했으며 프로그래머, 시스템 관리자로 일하고 있다. IT 관련 일을 하면서도 인문학에 관심이 많아 인문학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애플 인문학장 훈장으로서 인문학도 가르치고 있다. 또한 관심이 많은 IT와 인문학의 결합을 통해 더 나은 삶,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꾸고 있다. 현재 부산양서협동조합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부산의 독서모임 'Reading부산'과 '다독다독'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소통, 경청과 배려가 답이다』 등이 있다.



■ 목차

추천사

프롤로그
인공지능의 미래, 문제는 두려움이다

1장 알파고, 불가능의 세계를 정복하다

2장 인공지능시대, 인간과 기계의 공존

3장 인공지능의 미래, 인간만의 특성을 살려라

4장 미래세대 인간에게 필요한 것

5장 인공지능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에필로그
미래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문학이다

23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클라우드 슈밥 새로운현재 2016 경제/경영	303.483 016개
--------------------------------	--------------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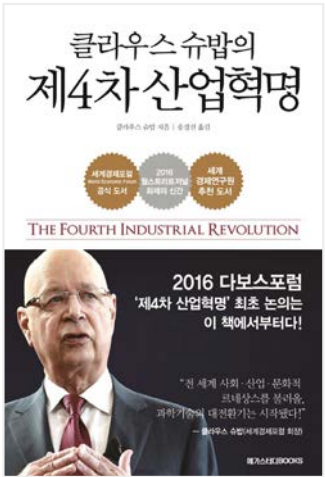
‘다보스 포럼’이란 명칭으로 익숙한 세계경제포럼은 올해 46주년을 맞이했다. 이 포럼의 창시자이자 회장,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클라우드 슈밥은 포럼 창립 이래 최초로 과학기술 분야 주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 디지털 기기와 인간,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융합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 제4차 산업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우버,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등 오늘날 혁신기업은 유비쿼터스와 모바일 인터넷,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통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세상에 내놓았다. 과학기술 영역의 경계를 넘나들며 탄생한 새로운 파괴적 혁신은 세상을 급속도로 바꾸고 있다. 지금 우리 앞에 세상을 뒤흔들 대물결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전 세계를 관통하는 새로운 화두,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 시대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이야기한다.

책의 1부는 총 세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챕터에는 제4차 산업혁명의 개요를 담았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변화를 불러오는 주요 과학기술을 소개한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새로운 혁명의 영향과 정책적 도전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 엄청난 변화를 가장 잘 수용하고 형성하며, 그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실용적 방안과 해법들을 제안한다.

저자 소개

저자 클라우드 슈밥(Klaus Schwab)은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 1938년 독일의 라벤스부르크에서 태어났다. 프리부르대학교(University of Fribourg)에서 경제학 박사, 스위스 연방공과대학교(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공학 박사,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공공 정책 대학원(Kennedy School of Government at Harvard University)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2년 제네바 대학교에 최연소 교수로 임용된 바 있다. 클라우드 슈밥은 학자이자 기업가,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으며, 지난 45년간 세계 경제 발전에 헌신하고 국제 분쟁 해결에 노력해왔다.



■ 목차

추천의 글_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서문_ 제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다

1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Chapter 1.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
Chapter 2.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
Chapter 3.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

2부. 제4차 산업혁명의 방법론

감사의 글_ 신진 산업혁명으로 더 나은 세계를 기대하며

주note

색인index

24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

에릭 토폴 청년의사 2015 의학	610.285 015개
--------------------------	--------------

책 소개

총 3부로 나뉘어 있는 이 책은 ‘의료민주화’에 대해 깊숙이 파고든다. 제1부에서는 변화의 역사적 선례인 구텐베르크로부터 의료가부장주의와의 유사점을 살펴보고 안젤리나 졸리처럼 자신의 의료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떤 새로운 태도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탐구한다. 제2부에서는 우리가 새로 습득한 자료와 정보를 다루면서 맞이하게 될 도전과 기회를 살펴본다. 자기만의 정보 체계, 자기만의 임상검사, 자기만의 스캔 영상, 자기만의 진료기록, 투약, 비용, 의사와의 상호작용 등이 무슨 의미인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이런 거대한 변화가 미칠 영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미래의 병원에서 필요해질 것에 대하여, 대규모 의학 자료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동시에 사생활 및 보안과의 올바른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하여,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상의 장벽을 낮추고 우리 각자를 의학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한다.

저자 소개

저자 에릭 토폴(Eric Topol, M.D.)은 스크립스 중개과학연구소(Scripps Translational Science Institute)의 유전학 교수 겸 소장이다. 스크립스 클리닉(Scripps Clinic)의 심장전문의로 현대의 심장 치료 확립에 기여한 수많은 임상연구들을 주도하였다. 《청진기가 사라진다》의 저자인 그는 의학계에서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되는 10명의 연구자들 중 한 명이고, 미국국립과학원 의학원(Institute of Medicine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의 일원으로 선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GQ>가 선정한 과학계 스타 12인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1990년 36세의 나이로 클리블랜드 클리닉 심장내과 주임교수가 된 이후 16년간 클리블랜드 클리닉 심장내과를 이끌었으며, 러너 의과대학의 설립에도 크게 기여했다. 의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디지털 혁신 기술의 확산에 힘쓰고 있다.



■ 목차

추천의 글들 /7

제1부 무르익은 혁명
제1장 뒤집어진 의료 /17
제2장 명성중심의학 /37
제3장 중대한 변화의 선례 /71
제4장 안젤리나 졸리, 나의 선택 /101

제2부 새로운 데이터와 정보
제5장 나의 GIS/ 139
제6장 나의 임상검사와 스캔검사 /179
제7장 나의 의무기록과 의약품 /209
제8장 나의 비용 /233
제9장 나의 (스마트폰) 의사 /263

제3부 충격
제10장 대형 건물 콤플렉스 /299
제11장 열려라 참깨 /317
제12장 보안이나 치유냐 /355
제13장 질병의 예측과 예방 /387
제14장 세상의 장벽 낮추기 /417
제15장 해방된 소비자 /443

감사의 말 /468

참고 문헌 /471

25 1984

조지 오웰 | 소담출판사 | 2021 | 영미소설

823 Or79n 021가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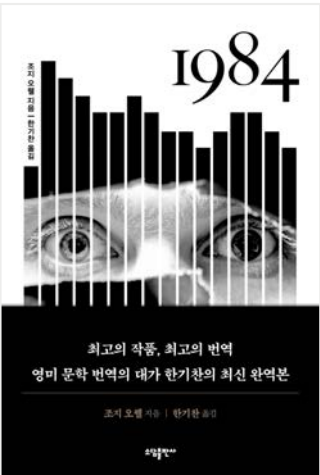
인간의 기본 욕구를 억제하는 독재 권력 사회에서
부조리함에 항거하는 개인의 최후를 예리하고 강력하게 묘사한 작품

『1984』는 미래 예언적 디스토피아 소설이다. 조지 오웰은 『1984』에서 독재 체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감정을 통제하고, 사고의 범위를 말살함으로써 중국에는 인간의 모든 가치를 제거하려는 독재 권력 세계를 통해 쏘아 올리는 조지 오웰의 비판적 메시지가 담겼다. 『1984』는 전체주의의 미래를 강력하게 형상화하여 부패한 권력을 비판하였으며, 뛰어난 통찰력과 예리한 묘사로 20세기의 중요한 문학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독재 정치 기구인 당은 텔레스크린을 통해 24시간 어디에서나 당원들을 감시하고 도청한다. 표정과 행동을 하나하나 감시하며 당의 이념에 반발하는 ‘생각’조차 금지되는 세상. 당은 가족 간의 사랑, 성욕까지 통제하며 당원들끼리, 가족들끼리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게 만든다. 고발당한 사람은 즉시 끌려가고 존재가 ‘증발’한다. 주인공 윈스턴은 당의 이념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두렵게 살아간다. 또한 당의 눈을 피해 연인 줄리아와의 관계를 아슬아슬하게 지속한다. 윈스턴과 줄리아는 당이 인간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더라도 마음만은 절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당의 전복을 꾀하지만 함정에 빠지는데…….

저자 소개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Eric Arthur Blair. 1903년 영국령이었던 인도의 벵골주에서 영국 하급 관리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튼 학교에 들어가 장학생으로 공부하다 졸업했다. 1922년부터 5년간 미얀마에서 경찰로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제국주의를 뼈저리게 실감한 그는 경찰을 그만두고 파리로 건너갔다. 1933년에 파리와 런던에서 겪었던 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첫 소설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을 발표하고, 1935년에는 『버마 시절』을 출간한다. 그는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여 전체주의에 관한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에는 소련의 스탈린 체제에 관한 우화인 『동물농장』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해 폐결핵의 악화로 병원 신세를 지었고, 아내마저 잃었다. 이후 작품 활동을 지속하다가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소설인 『1984』를 집필했다. 『1984』는 디스토피아 세계를 다루며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와 더불어 디스토피아 소설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1984』 출간 후 명성을 얻은 그는 이듬해 1950년 마흔일곱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 목차

1부

2부

3부

부록 | 신조어의 원리

역자 후기 | 비판적 사회주의자의 마지막 경고

26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 이성과 힘 | 2000 | 한국소설

811.37 조세희 난000가

책 소개

난장으로 상징되는 못 가진 자와 거인으로 상징되는 가진 자 사이의 대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우리시대의 불행과 행운, 질곡과 신생의 역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조세희의 연작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978년 초판을 발행한 이후, 최인훈의 광장과 더불어 100세를 넘어선 작품이다. 저자는 왜소하고 병신스런 모습의 ‘난장이’를 통해 산업시대에 접어든 우리 사회의 허구와 병리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할 꿈과 자유에의 열망을 보여준다. 표지는 판화가 이철수 씨의 판화로 꾸몄다.

저자 소개

1942년 경기초 가평에서 출생하였다. 서라벌예대와 경희대를 졸업했다.196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나 그는 십 년 동안 침묵을 지키며 일체의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5년 『뫼비우스의 띠』를 발표함으로써 새로 작가 생활을시작한그는 「칼날」로부터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에필로그」에 이르기까지,고통받는 소외계층 일가를 주인공으로 한 난장이 연작'을 1978년 열두 편으로 마무리지었다.현실과미학의 뛰어난 결합으로 평가된 이 연작은 「난장이가쏘아올린 작은공」으로 묶여 간행되었으며, 그 뒤 「시간여행」(문학과지성사)과 「침묵의 부리」(열화당)를 출간했다. 기층 민중들의 애환을 매우 정밀하게 그렸으며, 1970년대 산업 사회의 병리를 가장 예민하고 감동적으로 포착한 작가로 정평이 나 있다.



■ 목차

뫼비우스의 띠

칼날

우주 여행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육교 위에서

궤도 회전

기계 도시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클라인씨의 병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에필로그

27 완전한 행복: 정유정 장편소설

정유정 | 은행나무 | 2021 | 한국소설

811.37 정유정 완021가

책 소개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내 심장을 쏘라》《7년의 밤》《28》《종의 기원》《진이, 지니》. 발표하는 작품마다 독자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며 한국문학의 대 체불가한 작가로 자리매김한 정유정이 신작 《완전한 행복》으로 돌아왔다. 500여 쪽을 짊어준 압도적인 서사와 적재적소를 타격하는 속도감 있는 문장, 치밀하고 정교하게 쌓아올린 플롯과 독자의 눈에 작열하는 생생한 묘사로 정유정만의 스타일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한편, 더 완숙해진 서스펜스와 인간의 심연에 대한 밀도 높은 질문으로 가득 찬 수작이다.

《완전한 행복》은 버스로 다니지 않는 버려진 시골집에서 늪에 사는 오리들을 먹이기 위해 오리 먹이를 만드는 한 여자의 뒷모습에서 시작된다. 그녀와 딸, 그리고 그 집을 찾은 한 남자의 얼굴을 비춘다. 얼굴을 맞대고 웃고 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서로 다른 행복은 서서히 불협화음을 만들어낸다. 이 기묘한 불협화음은 늪에서 들려오는 괴기한 오리 소리와 공명하며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들은 각자 행복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노력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처럼, 그림자는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가족을 이끈다.

저자 소개

장편소설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로 제1회 세계청소년문학상을, 《내 심장을 쏘라》로 제5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했다. 장편소설 《7년의 밤》《28》《종의 기원》은 주요 언론과 서점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며 큰 화제를 모았고, 영미권의 펭귄북스·리틀브라운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브라질 등 해외 20여 개국의 출판사에서 번역 출판되면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에세이 《정유정의 히말라야 환상방향》《정유정, 이야기를 이야기하다》가 있다. 《진이, 지니》《완전한 행복》을 출간했다.



■ 목차

1부 / 그녀의 오리들
1장 009
2장 052
3장 126

2부 / 그녀는 누구일까
4장 201
5장 233
6장 289

3부 / 완전한 행복
7장 337
8장 389
9장 444

에필로그 508

작가의 말 520

28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장편소설

김호연 | 나무옆의자 | 2021 | 한국소설

811.37 김호연 불021가

책 소개

김호연 작가의 장편소설 『불편한 편의점』이 누적 판매 40만부 돌파를 기념하여 벚꽃 에디션으로 새 단장 했습니다. 2021년 4월에 출간되어 전 연령층의 폭 넓은 공감을 얻으며 소설 읽기 바람을 일으킨 『불편한 편의점』의 열기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읽는 내내 마음이 따뜻하고 먹먹했다” “눈가에 미소와 눈물이 떠나지 않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해서 읽었다” “작은 친절과 소통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책”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해준 책” 등의 독자 리뷰 하나하나가 책이 가진 힘을 말해줍니다. 청파동 골목 모퉁이의 작은 가게, 서울역 노숙인이었던 정체불명의 야간 알바가 지키는 곳, 불편한데 자꾸 가고 싶은 봄날의 편의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3년 세계문학상 우수상 수상작 『망원동 브라더스』로 데뷔한 후 일상적 현실을 위트 있게 그린 경쾌한 작품과 인간의 내밀한 욕망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스릴러 장르를 오가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쌓아올린 작가 김호연. 그의 다섯 번째 장편소설 『불편한 편의점』이 나무옆의자에서 출간되었다. 『불편한 편의점』은 청파동 골목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편의점을 무대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속내와 희로애락을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망원동 브라더스』에서 망원동이라는 공간의 체형적 지리지를 잘 활용해 유쾌한 재미와 공감을 이끌어냈듯 이번에는 서울의 오래된 동네 청파동에 대한 공감각을 생생하게 포착해 또 하나의 흥미진진한 ‘동네 이야기’를 탄생시켰다.

저자 소개

영화·만화·소설을 넘나들며 온갖 이야기를 써나가는 전천후 스토리텔러. 1974년 서울생.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첫 직장인 영화사에서 공동 작업한 시나리오 「이중간첩」이 영화화되며 시나리오 작가가 되었다. 두 번째 직장인 출판사에서 만화 기획자로 일하며 쓴 「실험인간지대」가 제1회 부천만화스토리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만화 스토리 작가가 되었다. 같은 출판사 소설 편집자로 남의 소설을 만지다가 급기야 전업 작가로 나섰다. 이후 ‘젊은 날 닥치는 대로 글쓰기’를 실천하던 중 장편소설 『망원동 브라더스』로 2013년 제9회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소설가가 되었다. 장편소설 『망원동 브라더스』(2013), 『연적』(2015), 『고스트라이터즈』(2017), 『파우스터』(2019)와 산문집 『매일 쓰고 다시 쓰고 끝까지 씁니다』(2020)를 펴냈다.



■ 목차

산해진미 도시락

제이에스 오브 제이에스

삼각김밥의 용도

원 플러스 원

불편한 편의점

네 캔에 만 원

폐기 상품이지만 아직 괜찮아

ALWAYS

감사의 글

29 김약국의 딸들: 박경리 장편소설

박경리 마로니에북스 2013 한국소설	811.37 박경리 김013가
----------------------------	------------------

책 소개

《토지》의 작가 박경리가 남긴 또 하나의 대표작 『김약국의 딸들』. 박경리의 이름을 강렬하게 인식시킨 첫 성공작이자, 박경리가 추구했던 생명주의 사상의 근간이 된 작품이다. 이번 책에서는 긴 세월을 걸쳐 계속된 재출간 속에서 바뀐 내용을 각 출판본을 대조하여 바로잡았으며, 구 판본의 발굴을 통해 유실된 부분을 추적하여 복원했다. 집필 당시의 본문을 온전히 되살린 판본으로, 작가가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기구한 운명의 다섯 자매를 중심으로 욕망과 운명 속에서 몸부림치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펼쳐진다.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근대 사회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전 시대의 유물처럼 쓸쓸히 흘러가는 김약국, 가족을 위한 희생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의 부인 한실댁, 그리고 딸들의 이야기는 우리 민족사의 축소판과 같다. 비극으로 치닫는 그들의 삶을 통해 작가는 생명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다.

저자 소개

저자 박경리는 1926년 10월 28일(음력)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났다. 1945년 진주고등여학교를 졸업하였다. 1955년 김동리의 추천을 받아 단편 『계산』으로 등단하였다. 『표류도』(1959), 『김약국의 딸들』(1962)을 비롯하여 『파시』(1964), 『시장과 전장』(1965) 등 사회와 현실에 대한 비판성이 강한 문제작을 잇달아 발표하여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9년 9월부터 대하소설 『토지』를 연재하기 시작하여 26년 만인 1994년에 완성하였다. 2003년 장편소설 『나비아 청산가자』를 『현대문학』에 연재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미완에 그치고 말았다. 수필집 『Q씨에게』, 『원주통신』, 『만리장성의 나라』,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 『생명의 아픔』 등과 시집으로는 『못 떠나는 배』, 『도시의 고양이들』, 『우리들의 시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등이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명예문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연세대학교에서 용재 석좌교수 등을 지냈다. 1996년부터 토지문화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현대문학 신인상, 한국여류문학상, 월탄문학상, 인촌상, 호암 예술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칠레정부로부터 '가브리엘라 미스트랄 문학 기념 메달'을 수여 받았다. 2008년 5월 5일 타계하였으며 정부에서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였다.



■ 목차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30 채식주의자: 한강 연작소설

한강 창비 2007 한국소설	811.37 한강 채007가
-----------------------	-----------------

책 소개

한국인 최초 맨부커상 수상작 『채식주의자』. 1부《채식주의자》, 2005년 이상문학상 수상작인 2부 《몽고반점》, 그리고 3부《나무 불꽃》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아하고 시심 어린 문체와 밀도있는 구성력이라는 작가 특유의 개성이 고스란히 살아 있으면서도 상처 입은 영혼의 고통을 식물적인 상상력에 결합시켜 섬뜩한 아름다움의 미학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어린시절 자신의 다리를 문 개를 죽이는 장면이 뇌리에 박혀 점점 육식을 멀리하고 스스로가 나무가 되어간다고 생각하는 영혜를 주인공으로 각 편에서 다른 화자가 등장한다. 《채식주의자》에서는 아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남편, 《몽고반점》에서는 처제의 엉덩이에 남은 몽고반점을 탐하며 예술혼을 불태우는 사진작가인 영혜의 형부, 세번째 《나무 불꽃》에서는 남편과 여동생의 불륜을 목격했으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혜가 화자로 등장한다.

잔잔한 목소리지만 숨 막힐 듯한 흡인력이 돋보이는 이 소설은 상처받은 영혼의 고통과 식물적인 상상력을 결합시켜 섬뜩하지만 아름다운 미적 경지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저자가 발표해온 작품에 등장했던 욕망, 식물성, 죽음, 존재론 등의 문제를 한데 집약시켜놓은 것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저자 소개

저자 한강은 1970년 늦은 11월에 태어났다.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1993년 『문학과사회』에 시를 발표하고,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붉은 댕」이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검은 사슴』 『그대의 차가운 손』 『채식주의자』 『바람이 분다, 가라』 『희랍어 시간』 『소년이 온다』, 소설집 『여수의 사랑』 『내 여자의 열매』 『노랑무늬영원』,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등이 있다. 만해문학상, 황순원문학상, 동리문학상, 이상문학상, 오늘의 젊은예술가상, 한국소설문학상을 수상했다. 한편 2007년 출간한 『채식주의자』는 올해 영미판 출간에 대한 호평 기사가 뉴욕타임스 등 여러 언론에 소개되고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후보 선정 소식이 잇따르며 인간의 폭력성과 존엄에 질문을 던지는 한강 작품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해문학상 수상작 『소년이 온다』의 해외 번역 판권도 20개국에 팔리며 한국문학에 활기를 더해주고 있다.



■ 목차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 불꽃
해설 · 허윤진
작가의 말
수록작품 발표 지면

31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 장편소설

카잔차키스, 이윤기 | 열린책들 | 2009 | 고전소설

889.3 K23v 009가

책 소개

현대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장편소설 『그리스인 조르바』. 카잔차키스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준 작품으로, 호쾌한 자유인 조르바가 펼치는 영혼의 투쟁을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리고 있다. 주인공인 조르바는 카잔차키스가 자기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꼽는 실존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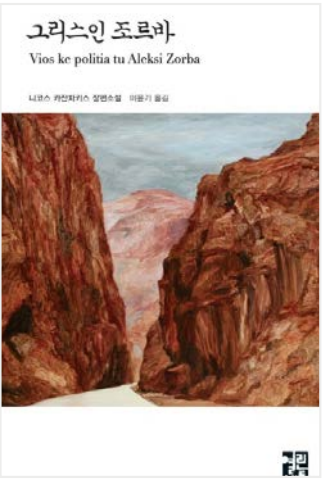
이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카잔차키스의 인생과 작품의 핵심에 있는 개념이자 그가 지향하던 궁극적인 가치인 '메토이소노', 즉 "거룩하게 되기"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육체와 영혼, 물질과 정신의 상태 너머에 존재하는 변화이다. 이 개념에 따라 카잔차키스는 조르바라고 하는 자유인을 소설로 변화시켰다고 말한다.

이야기는 젊은 지식인 "나"가 크레타 섬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다가, 60대 노인이지만 거침이 없는 자유인 조르바를 만나는 것에서 시작된다. 친구에게 '책벌레'라는 조롱을 받은 후 새로운 생활을 해보기로 결심하여 크레타 섬의 폐광을 빌린 "나"에게 조르바는 좋은 동반자가 된다. "나"와 조르바가 크레타 섬에서 함께한 생활이 펼쳐진다.

저자 소개

저자 니코스 카잔차키스 Nikos Kazantzakis는 현대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20세기 문학의 구도자>로 불리는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1883년 크레타 이라클리온에서 태어났다. 터키의 지배하에서 기독교인 박해 사건과 독립 전쟁을 겪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이런 경험으로부터 동서양 사이에 위치한 그리스의 역사적 사상적 특이성을 체감하고 이를 자유를 찾으려는 투쟁과 연결시킨다. 1908년 파리로 건너간 그는 베르그송과 니체를 접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투쟁적 인간상>을 부르짖게 된다.

두 차례 노벨 문학상 후보로 지명되었고,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에 비견될 만큼 위대한 작가로 추앙받고 있다.



■ 목차

- 그리스인 조르바
- 20세기의 오디세우스
- 개역판에 부치는 말
- 니코스 카잔차키스 연보

32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 윤동주 전집

윤동주 | 연세대 출판부 | 2004 | 한국어

811.16 윤동주 하004가 c.3

책 소개

윤동주 시인의 원본 대조 시 전집. 윤동주 시인은 1917년 12월 30일에 중화민국 동북부(만주)에서 출생하여 1945년 2월 16일에 일본 규슈의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망하였다. 시 123편이 수록된 원본대조 시 전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윤동주 시인의 시에 숨겨진 의도를 찾아내어 현대어문으로 복원해낸 이상적인 정본이다. 윤동주 시인의 원고 노트 3권과 산문집, 낱장 원고와 신문·잡지, 등에서 찾아낸 시 작품을 현대어문과 원문으로 나눠서 수록하였으며, 정지용 시인, 박두진 시인, 문익한 시인, 등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글도 수록한 원본 대조 시 전집이다.

저자 소개

1917년 북간도 명동촌에서 출생하여 연희전문 문과를 졸업하였고 일본 동경 동지사대학에서 수학하였다. 1936년부터 여러 지면의 학생란에 동시, 시, 산문 등을 발표하던 중 1941년 자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간행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43년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45년 구주 복강 형무소에서 의문의 병사를 당했다.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가 간행된 이후 지금까지 무수한 판본의 '윤동주 시집'이 나왔다.



■ 목차

- 머리말
- 제1부: 1934~1937년 사이의 시
- 제2부: 1938~1942년 사이의 시
- 제3부: 미완성, 삭제 시편
- 제4부: 산문편

33 법륜스님의 행복 : 행복해지고 싶지만 길을 몰라 헤매는 당신에게

법륜 | 나무의마음 | 2016 | 종교

294.34 016가

책 소개

법륜 스님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전국방방곡곡은 물론 세계 115개 도시의 강연장과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그들은 법륜 스님에게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회적 갈등과 세상의 불평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묻는다. 일견 다 다른 질문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결국 ‘행복’이다.

『법륜 스님의 행복』은 그 간절한 물음에 대한 응답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법륜 스님에게 던진 질문과 그 답변 중 가장 많은 공감과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내용을 엄선한 행복 안내서인 셈이다. 온전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개인의 마음가짐을 강조했던 기존 저서와는 달리 행복을 이끄는 또 다른 바퀴인 사회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법륜 스님이 말하는 행복해지는 길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는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온전히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물의 전모를 보는 통찰력을 키우고, 행복하지 못한 원인을 분명히 알 때 비로소 문제해결의 길도 열린다고 말한다. 이처럼 냉정하지만 따뜻하고 단순하지만 명쾌한 법륜 스님의 행복론은 행복해지고 싶지만 길을 몰라 헤매는 이들에게 보탬이 되어준다.

저자 소개

저자 법륜은 메마른 세상에 평화와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수행자이자 제3세계를 지원하는 활동가이며, 인류의 문명전환을 실현해가는 사상가다. 특히 현대인들의 불안과 소외감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쉽고 명쾌한 즉문즉설(卽問卽設)로 사람들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이야기해오고 있으며, 개인의 행복과 사회문제가 결코 둘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환경·사회·구호·통일운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에는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이라 불리는 라몬 막 사이사이상(국제평화와 이해 부문)을, 2007년 민족화해상을, 2011년에는 포스코 청암상(봉사 부문)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는 《스님의 주례사》, 《엄마 수업》, 《인생 수업》, 《방향해도 괜찮아》, 《새로운 백년》, 《지금 여기, 깨어 있기》, 《야단법석》 등이 있다.



■ 목차
1장 왜 내 삶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2장 감정은 만들어진 습관
3장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법
4장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 마라
5장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해지는 연습

34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단편선

톨스토이 | 문예출판사 | 2015 | 고전소설

891.73 T654c 015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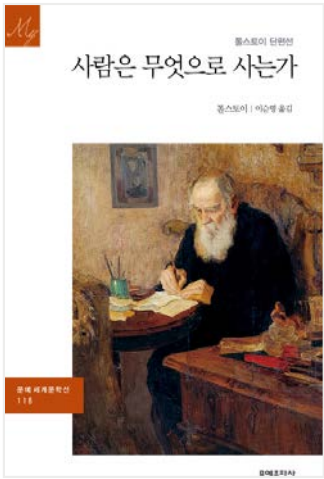
책 소개

세계적 문호 톨스토이가 답하는 인생의 지혜가 담긴 명작『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9세기 러시아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호이자 대사가가인 톨스토이의 중 단편 약 50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10편을 선별해 엮은 단편선이다. 영어로 번역된 책을 재번역한 것이 아닌 러시아 원전을 직접 번역한 것으로 원작의 의미를 더욱 충실히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이다.

1890년 말 대기근이 러시아를 덮쳤을 때 여러 지역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등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삶에서 실천한 작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문학을 통해 사회의 병폐를 치유하고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톨스토이주의’가 잘 드러나는 그의 후기 작품이다. 동화처럼 쉽고 재미있게 읽히지만 곳곳에 숨겨진 읽을수록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삶의 지혜는 세계적 문호 톨스토이의 위대함을 다시금 느끼게 해준다. 이를 포함한 10편의 동화 같은 단편들은 간명한 이야기이기에 선명하게 보이는 선과 악으로 우리의 복잡한 현실을 더 쉽게 돌아볼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저자 소개

저자 톨스토이(Лев Николаевич Толстой, 1821~1881)는 1828년 8월 부유한 백작 가문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두 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홉 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마저 잃는다. 잇따른 부모의 죽음 후 친척 집에서 자라면서 내성적이고 명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되었다. 1844년에는 카잔 대학에 들어갔으나 자유분방한 생활 끝에 퇴학당하고 고향 영지로 돌아가 농사 개혁을 생각하는 한편 문학에 정열을 쏟기 시작한다. 이상주의자이자 쾌락주의자였던 젊은 시절의 톨스토이는 도박을 즐기는 등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톨스토이는 이 때문에 평생 자괴감을 느꼈고 이는 역설적으로 그의 작품과 사상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1853년 크림전쟁이 발발하자 장교로 참전해 활약한 그는 돌아와 작가로서 소조로운 길을 걷다가 1857년 유럽 여행길에 올랐고, 귀국 후에는 농노제 폐지를 주창하고 농민학교를 개설하는 등 자유방임주의 교육을 실천하며 농민 계몽에 힘쓴다. 1862년에는 열여덟 살 어린 소피야와 결혼하고, 아내의 내조 덕분에 안정을 찾아 불멸의 거작 《전쟁과 평화》(1864~1869)를 쓴다. 1870년 초부터 톨스토이는 다시 교육 활동에 힘을 쏟았고 또 하나의 명작 《안나 카레니나》(1873~1876)를 내놓는다.



■ 목차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춧불
세 가지 질문
바보 이반
노동과 죽음과 병
불을 놓아두면 끄지 못한다
두 노인
대자
작품 해설

35 여행의 이유

김영하 | 문학동네 | 2019 | 에세이

811.4 김영하 여019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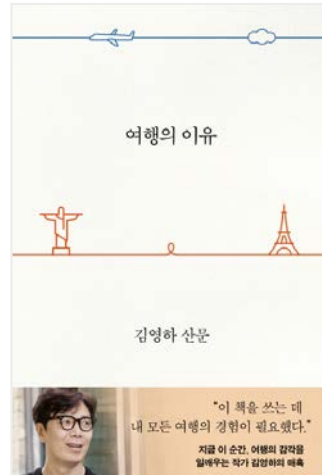
책 소개

여행의 감각을 일깨우는 소설가 김영하의 매혹적인 이야기 『여행의 이유』. 꽤 오래전부터 여행에 대해 쓰고 싶었던 저자가 처음 여행을 떠났던 순간부터 최근의 여행까지 자신의 모든 여행의 경험을 담아 써내려간 아홉 개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지나온 삶에서 글쓰기와 여행을 가장 많이, 열심히 해온 저자는 여행이 자신에게 무엇이었는지,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꾸준히 다녔던 것인지, 인간들은 왜 여행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고, 여행의 이유를 찾아가며 그 답을 알아가고자 한다.

2005년, 집필을 위한 중국 체류 계획을 세우고 중국으로 떠났으나 입국을 거부당하고 추방당했던 일화로 시작해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목적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추방과 멀미》, 일상과 가족,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피로로부터 도망치듯 떠나는 여행에 관해 다룬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즐겁고 유쾌하게만 보이는 예능 프로그램 《알쓸신잡》에 출연하면서 하게 된 독특한 여행에 대한 글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여행》 등의 이야기를 통해 매순간 여행을 소망하는 여행자의 삶, 여행의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게 된다.

저자 소개

장편소설 『살인자의 기억법』 『너의 목소리가 들려』 『퀴즈쇼』 『빛의 제국』 『검은 꽃』 『아랑은 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소설집 『오직 두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오빠가 돌아왔다』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호출』, 산문집 삼부작 『보다』 『말하다』 『읽다』 등이 있다.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번역했다. 문학동네작가상 동인문학상 황순원문학상 만해문학상 현대문학상 이상문학상 김유정문학상 오영수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 목차

- 추방과 멀미
-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 오직 현재
- 여행하는 인간, 호모 비아토르
-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여행
- 그림자를 판 사나이
- 아폴로 8호에서 보내온 사진
- 노바디의 여행
- 여행으로 돌아가다
- 작가의 말

36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유발 하라리 | 김영사 | 2015 | 인문교양

909 015그 c.3

책 소개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 지구에는 호모 사피엔스뿐만 아니라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등 최소 6종의 인간 종이 살아 있었다. 이후 호모 사피엔스 종만이 유일한 승자로 지구상에 살아남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신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 『사피엔스』는 이처럼 중요한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 어떤 전망이 있는지, 지금이 전망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한다.

저자는 “앞으로 몇십 년 지나지 않아, 유전공학과 생명공학 기술 덕분에 인간의 생리기능, 면역계, 수명뿐 아니라 지적, 정서적 능력까지 크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하지만 이런 기술 발달은 모두에게 공평한 것은 아니다. 부자들은 영원히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야 하는 세상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저자가 우울한 이야기만 풀어놓는 것은 아니다. 그는 행복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고, 행복에 대한 가능성 역시 더 많이 열려 있다고 말하며, 일말의 여지를 남긴다. 이제, 인류가 멸종할 것인지, 더 나은 진보를 이룩할 것인지, 어떤 것에 방점을 두고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저자 소개

저자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태어나, 2002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중세 역사와 전쟁 역사로, 역사와 생물학의 관계, 역사에 정의는 존재하는지, 역사가 전개됨에 따라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더 행복해졌는지 등 거시적인 안목으로 역사를 보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의 세계사 연구는 유튜브 등의 동영상 통해 알려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전 세계 8만 명 이상이 그의 수업을 듣고 있다. 2009년과 2012년에 ‘인문학 분야 창의성과 독창성에 대한 폴론스키 상Polonsky Prize for Creativity and Originality in the Humanistic Disciplines’을 수상했고, 2012년에 ‘영 이스라엘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The Young Israeli Academy of Sciences’에 선정되었다. 인류학, 사회학, 생물학 등 분야를 넘나드는 오랜 연구의 결과물인 《사피엔스》는 처음 이스라엘에서 출간되어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이어 아메리카, 아시아 등 세계 각국 30개 언어로 출간되어 전 세계적인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 목차

- 한국의 독자들에게
- 역사연대표
- 제1부 인지혁명
- 제2부 농업혁명
- 제3부 인류의 통합
- 제4부 과학혁명
- 후기_ 신이 된 동물
- 역자후기
- 참고문헌
- 찾아보기

37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 남도답사 일번지

유홍준 | 창비 | 2011 | 인문교양

915.1 011겨 v.1

책 소개

답사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는 인문서『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 : 남도답사 일번지』. 1990년대 초중반 전국적인 답사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인문서 최초의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가 '시즌 2'를 선언하며 10년 만에 돌아왔다. 이번 신간에는 사진자료를 컬러로 복원하면서, 본문에서 묘사하는 색감과 질감 등을 생생하게 구현하고 사진자료까지 첨부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강진·해남 일대와 예산 수덕사, 경주 일대, 담양 소쇄원, 고창 선운사 등을 수록하여 풍성한 내용과 저자 특유의 미적 감각을 엿 볼 수 있다. 특히 경주 감은사탑이 대표하는 한국의 화강암 석탑들과 에밀레종의 이야기는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저자 소개

저자 유홍준은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미학과, 홍익대 미술사학과(석사),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박사)를 졸업했다. 1981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미술 평론으로 등단한 뒤 미술평론가로 활동하며 민족미술협의회 공동대표와 제1회 광주비엔날레 커미셔너 등을 지냈다.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과 대구에서 젊은이를 위한 한국미술사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한국문화유산답사회'를 이끌었다. 영남대 교수 및 박물관장, 문화재청장을 역임했다. 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 정년퇴임 후 석좌교수로 있다. 저서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국내편 1~10, 일본편 1~4), 평론집 『다시 현실과 전통의 지평에서』, 미술사 저술 『조선시대 화론 연구』 『화인열전』(1·2) 『완당평전』(1~3) 『국보순례』 『명작순례』 『안목』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1~3) 『추사 김정희』 등이 있다. 제18회 만해문학상(2003) 등을 수상했다.



■ 목차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남도답사 일번지-강진·해남 1, 2, 3, 4 예산 수덕사: 내포땅의 사랑과 미움 개심사와 가야산 주변: 불타는 가야사와 꽃피는 개심사 경주 1, 2, 3 관동지방의 폐사지: 하늘 아래 끝동네 문경 봉암사 1, 2 담양 소쇄원: 자연과 인공의 행복한 조화 담양의 옛 정자와 원림: 자미탄의 옛 정자를 찾아서 고창 선운사: 동백꽃과 백파스님, 그리고 동학군의 비기(秘機) 양양 낙산사: 동해 낙산사의 영광과 상처
부록: 답사 일정표와 안내지도

38 백범일지 : 백범 김구 자서전

김구 | 돌베개 | 2002 |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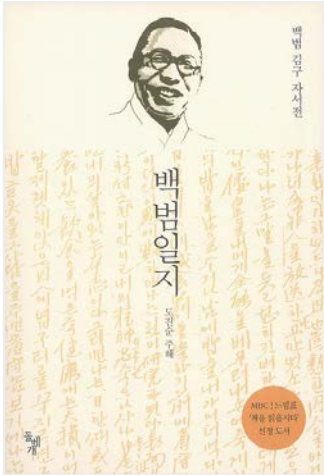
951.66092 김구 백002가

책 소개

전문연구자의 원전비평에 기초한 정본『백범일지』. 백범 김구의 자서전으로 진솔하고 감동적인 기록을 담았다. 이 책은 친필 원본은 물론 등사본과 필사본, 여러 가지 출간본 등 여러 저본을 일일이 면밀하게 검토, 대조했다. 또한 사전류는 물론 고전, 규장각 자료 등의 고문서, 수많은 회고록, 일본, 중국 등 해외의 임정 관계 자료까지 두루 활용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원본의 미흡한 점과 착오 등을 수정, 보완했다. 27년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온 민족독립운동가이자, 자신의 전 생애를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거리의 큰 스승인 백범의 삶을 잘 드러내고 있다.

저자 소개

저자 김구는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17세 때 동학에 입교하여 접주로 활동했다. 동학혁명에 참여했으며, 안중근 아버지 집에 숨어 있다 치하포에서 상인으로 변장한 일본군을 죽이고 감옥에 갇혔다. 감옥을 탈옥해서 마곡사에 숨었다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세상 공부를 하였다. 29세 때 최준례와 결혼한 후 교육 운동에 전념하다 1919년 3 . 1혁명 때 상해로 망명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했다. 문지기로 출발해서 주석이 되었고, 이봉창 . 윤봉길 의거를 기획하고 지원하였다. 해방 후 통일 운동에 앞장서다 1949년 안두희에게 저격당해서 순국했다. 74세로 돌아가신 백범 김구는 투철한 신념으로 민족 독립과 통일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선각자로 우리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으로 꼽히고 있다.



■ 목차
교감원칙 일려두기 백범 출간사
상권
인·신 두 아들에게 1. 황해도 벽촌의 어린 시절 2. 시련의 사회 진출 3. 질풍노도의 청년기 4. 방랑과 모색 5. 식민의 시련 6. 망명의 길
하권
하권을 쓰고 나서 1. 상해 임시정부 시절 2.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 3. 피신과 유랑의 나날 4. 다시 민족운동의 전선으로 5. 중경 임시정부와 광복군 6. 해방 전후의 대륙 7. 조국에 돌아와서 나의 소원
백범 연보 인물 찾아보기

39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앙드레 쉬미드 | 휴머니스트 | 2007 | 한국사

951.59 007거

책 소개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은 한국 민족주의의 기원과 역사를 계보학적으로 연구한 책이다. 한국인의 민족의식의 발전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떻게 근대적 지식의 개념과 상징이 창조되었는지, 나아가 어떻게 근대 초기의 지식이 민족적 정체성, 네이션-스테이트, 그리고 민족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근원적 인식을 창조하는 정치적 기획으로 통합되었는지를 탐구한다.

저자는 한국의 민족주의 연구에서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다양한 표상, 서사, 수사학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20세기 초 사회적·정치적 격변기를 겪고 있던 한국 근대의 문화적 전제들의 형성 과정, 그리고 당시 한국의 주요 언론이었던 대한매일신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에 나타난 언어적 전환들을 추적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들은 위기에 처해 있던 한국의 상황을 인식하게 만드는 중재자였으며, 한국 민족주의 부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책은 저자의 설득력 있는 논증과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애국계몽기 한국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민족 공동체로 재인식하기 시작했는가를 파헤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기존의 역사학계에서 보편적인 담론으로 기능했던 식민지와 피식민지의 이분법에 강력하게 도전하며, 한국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 소개

미국 콜롬비아 대학 역사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캐나다 토론토 대학 동아시아 연구 분과의 부교수. 그의 관심은 20세기 초 한국의 민족주의 운동뿐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지형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뻗어 있다.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Korea Between Empires 1895~1918)》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떻게 근대적 지식의 개념과 상징이 창조되었는지, 나아가 어떻게 근대 초기의 지식이 민족적 정체성, 네이션-스테이트, 그리고 민족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근원적 인식을 창조하는 기획으로 통합되었는지를 탐구한다.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Columbia University Press]은 아시아 연구 연합회의 존 휘트니 홀 상[the Association of Asian Studies' John Whitney Hall award]을 받았다.



■ 목차

옮긴이 서문
감사의 말

서론 어떤 기념비 이야기

- 1장 문명의 강풍이 불어오다
- 2장 탈중화와 동양의 재편
- 3장 문명화된 일본과의 만남
- 4장 혼, 역사, 그리고 정통성
- 5장 민족국가 이야기
- 6장 반도의 경계들
- 7장 반도의 경계를 넘어

에필로그 식민주의와 민족주의의 동
일성

미주
참고문헌
슈미드의 역사학
찾아보기

40 음악과 권력

베로니카 베치, 노승림 | 컬처북스 | 2007 | 예술

306.4842 009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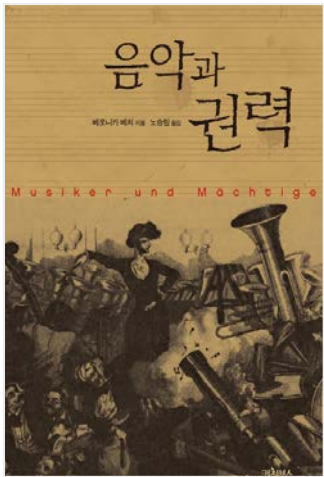
책 소개

대부분의 음악가는 정치적 갈등이라곤 전혀 모른 채 진실하고 아름다운 세계 안에서 순수하게 음악에만 몰두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가? 그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한 역사 속에서 치열하고 처절하며, 때로는 치부를 드러내듯 부끄럽고도 치졸한 사건들과 시시때때로 맞닥뜨려 왔다.

이 책의 저자 베로니카 베치는 “음악은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은 음악을 이용했다”는 전제 아래, 음악가들의 삶이 그리 낭만적이지만은 않았다는 점을 꼬집어 밝히고 있다. 그녀는 음악가들의 대작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부터, 각기 자신이 활동하던 시대의 정권과 어떻게 유착관계를 맺어 왔는지 혹은 정권에 대항하여 어떠한 활동을 펼쳐 나갔는지 등 때로는 음악 외적 배경이 음악이라는 본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를 여러 유명 작품을 예로 들어 상세하게 소개한다.

저자 소개

현재 독일 뮌스터에 거주 중이며, 음악학 박사로 다양한 음악 관련 서적을 집필해 왔다. 대표작으로는 『베르디, 어느 작곡가의 일생』과 『음악 살롱』 등이 있다.



■ 목차

- 1장_ 국가國歌에 얽힌 음악가들
- 2장_ 폰 빙엔, 쉬츠, J. 슈트라우스
- 3장_ 라소, 몬테베르디, 웰리, 바흐
- 4장_ 모차르트, 하이든, 글루크
- 5장_ 라이하르트
- 6장_ 살리에리, 그레트리, 케루비니
- 7장_ 베토벤
- 8장_ 슈베르트, 멘델스존, 질허, 로르칭
- 9장_ 킨켈, 요아힘, 말러
- 10장_ 슈만
- 11장_ 마이에베어, 알레비, 바그너, 말러
- 12장_ 베버, 그리그, 엘가
- 13장_ 베를리오즈, 오펜바흐, 레거, 쇤베르크
- 14장_ R. 슈트라우스, 힌데미트, 피츠너
- 15장_ 스트라빈스키, 아이슬러, 코른골트
- 16장_ 울만
- 17장_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 18장_ 헨체, 슈톡하우젠, 크세나키스, 윤이상

인명 색인
참고자료

41 베토벤의 삶과 음악세계

조수철 | 서울대학교출판 | 2007 | 예술

780.92 B415 002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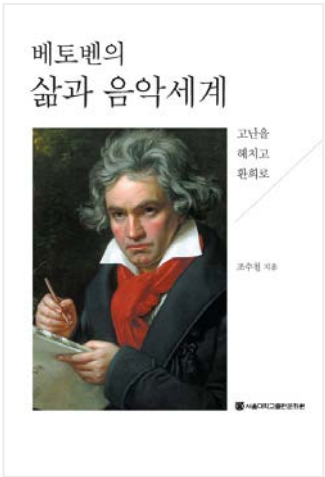
책 소개

인간과 음악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음악은 인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음악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영혼을 맑고 밝게 만들어 주는 데에도 지대한 역할을 한다. 음악의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음악가들이 있어 왔지만 베토벤만큼 널리 알려진 음악가는 없을 것이다. 베토벤의 삶 자체는 그의 음악만큼이나 영웅적이다. 베토벤의 음악은 그의 심성이나 사상의 발달단계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따라서 베토벤의 음악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린이가 같은 천진난만함을 느낄 수 있게 해 주고, 인간이 겪는 처절한 운명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

베토벤의 음악은 투쟁과 평화,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더러움과 깨끗함, 전통과 개혁, 무질서와 질서, 기쁨과 슬픔, 성(聖)과 속(俗) 등 모든 대극적인 상황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힘이 있다. 이런 점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베토벤의 삶과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다.

저자 소개

저자 조수철은 소아·청소년 정신의학이 전공이다. 음악을 즐겨 들으며 특히 음악과 인간의 발달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 수년 전부터는 음악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 왔으며, 특히 베토벤에 대한 관심이 많아 베토벤에 대한 논문을 주로 써 왔다. 「베토벤의 생애와 음악」(1996), 「베토벤의 아홉 교향곡들: 발달학적 측면」(1997), 「베토벤의 후기 현악4중주곡: 인격적 발달과 음악적 표현과의 관계」(1997) 등을 발표하였으며, 음악과 정신의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논문도 발표한 바 있다. 한 개인에 있어서 조화로운 심성의 발달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대인관계의 형성에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하여 강조하며, 음악회나 음악 프로그램에서 해설을 하는 등 고전음악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목차

- 머리말
- 제1장 조상 및 가족관계
- 제2장 본 시절(1770~1792)
- 제3장 비엔나 시절(1793~1827)
- 제4장 질병론
- 제5장 여인론
- 제6장 종교론
- 제7장 인격 특성
- 제8장 후손
- 제9장 악성(樂聖)으로서의 베토벤, 그 교훈
- 프란츠 그릴파르처의 추도사 후기 / 인명록 / 참고문헌
- 베토벤 연보인명 색인

42 클래식을 뒤흔든 세계사

니시하라 미노루, 정향 | 북방 | 2007 | 세계사

780.9 016거

책 소개

클래식은 발전해 온 기간이 길어 그 역사를 되짚다보면 세계사가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클래식을 뒤흔든 세계사』는 종교개혁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세계사의 결정적 순간에 어김없이 등장한 클래식 음악의 탄생 비화를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다. 정치적 역학 관계, 왕후·귀족간의 알력 관계, 국가의 경제상황, 혁명과 전쟁 등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수많은 명곡에 숨겨진 진실의 역사를 파헤친다.

저자 소개

저자 니시하라 미노루는 1962년 일본 야마가타 현에서 태어났다. 음악사회사를 전공했으며 도쿄예술대학 대학원 박사 과정을 마쳤다. 현재 토호가쿠엔 대학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음악가와 음악 작품이 탄생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독일 낭만파 음악, 브람스의 생애와 작품, 슈만의 피아노 작품 연구 등에 관심이 있다.



■ 목차

- 제1장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의 시대 1550~1650
- 제2장 꽃피는 궁정 문화와 절대왕정 1650~1730
- 제3장 바흐의 작품에 숨겨진 세계사 1650~1730
- 제4장 흔들리는 궁정 지배 1730~1790
- 제5장 모차르트 작품에 감추어진 세계사 1730~1790
- 제6장 프랑스 혁명에서 빈 체제로 1790~1830
- 제7장 베토벤의 작품에 숨겨진 세계사
- 제8장 1830년 7월 혁명과 음악 1830~1850
- 제9장 빈 체제의 종언 1830~1850
- 제10장 유대인의 도시, 베를린 1830~1850
- 제11장 유럽 재편의 시대 1850~1890
- 제12장 저물어 가는 유럽 1890~1914
- 제13장 제1차 세계대전과 음악 1914~1920

43 고백록

아우구스티누스/성염 | 경세원 | 2016 | 철학

242 016가

책 소개

르네상스의 문장가 페트라르카는 어디를 여행하든 「고백록」을 곁에 두고 읽고 그 내용에서 커다란 정신적 안위와 기쁨을 누렸노라고 실토했다. 성서를 제외하고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 온 이 책이 작가의 심미적 문체와 열정적인 기질 덕분에 종교서적으로 그치지 않고 ‘세계문학전집’에 필히 들어가는 고전이 된 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한 지성인의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저자 소개

아우구스티누스 위대한 사상가이자 성인(聖人)으로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는 북아프리카 누미디아 주 타가스테에서 출생하였다. 카르타고 등지로 유학하여 수사학(修辭學) 등 당시로서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는, 로마제국 말기의 퇴폐한 풍조 속에서 일시적이거나 타락한 생활 속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 귀의, 히포의 주교가 되었으며,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신학자가 되었다. 신과 영혼에 특히 관심을 가진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참된 행복은 신을 사랑하는 그 자체에 있으며, 그 신은 우리 영혼에 내재하는 진리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고대문화 최후의 위인이었으며 동시에 중세문화의 선구자였다.

저서로는 〈고백록〉 〈삼위일체론〉 〈신국론〉 등이 있다.



■ 목차

- 고백록을 옮기면서 4
해 제
서론 : 아우구스티누스, 진리의 연인 10
1. 저작의 정황과 연대 13
2. 세 차례의 사상적 전향 19
3. 「고백록」 후반부 개관 36
본문과 역주
제1권 출생 및 어린이, 소년 시절 53
제2권 내 나이 열여섯 87
제3권 카르타고에서 연학에 몰두하다 105
제4권 9년간 타가스테와 카르타고에서 교사를 하다 131
제5권 카르타고를 떠나 로마로 가고 거기서 다시 밀라노로 향하다 165
제6권 나이 서른 197
제7권 진리를 향한 상승의 길 231
제8권 유일하고 참된 하느님께 회심 271
제9권 세례와 아프리카 귀환 307
제10권 하느님을 찾고 인식하여 345
제11권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태초에 관한 주석 417
제12권 하느님이 만드셨다는 하늘과 땅에 관한 주석 461
제13권 유비적으로 성찰한 세계의 피조물 511

44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장경철 | 홍성사 | 2018 | 종교

230 018교

책 소개

의심할 바 없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고전(古典)

〈타임〉(TIME)이 “의심할 여지 없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일컬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 C. S. 루이스. 그는 “모든 시대에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믿어 온 바를 ‘설명’하고 ‘수호’하는 일”이야말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한 최상의 봉사이자 아마도 유일한 봉사”라고 생각했다. 그 ‘봉사의 열매가 ‘20세기 기독교 명저 1위’(Christianity Today)에 선정된 《순전한 기독교》이다. 이 책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C. S. 루이스 협회와의 정식 판권 계약, 루이스에 정통한 번역자들의 빼어난 번역과 검토, 원문 대조를 통한 정치(精緻)한 편집을 거쳐 행복한 책임기의 즐거움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 목차

- 머리말
1.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2.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3. 그리스도인의 행동
4.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옮긴이의 말

저자 소개

C. S. 루이스 _ 1898년 아일랜드 벨파스트 출생. 1925년부터 1954년까지 옥스퍼드의 모들린 칼리지에서 강의하다가, 1954년 케임브리지의 모들린 칼리지 교수로 부임하여 중세 및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쳤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신앙을 버리고 완고한 무신론자가 되었던 루이스는 1929년 회심한 후, 치밀하고도 논리적인 변증과 명료하고 문학적인 문체로 뛰어난 저작들을 남겼다. 1963년 작고.

홍성사가 역간한 루이스의 저작으로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이기치 못한 기쁨》, 《천국과 지옥의 이혼》, 《헤아려 본 슬픔》, 《시편 사색》, 《네 가지 사랑》, 《인간 폐지》,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개인 기도》, 《기적》, 《영광의 무게》, 《루이스가 메리에게》, 《피고석의 하나님》, 《루이스가 나니아의 아이들에게》, 《기독교적 속고》, 《당신의 벗, 루이스》, 《순례자의 귀향》, 《세상의 마지막 밤》, 《실낙원 서문》, 《오독》, 《침묵의 행성 밖에서》, 《페렐란드라》, 《그 가공할 힘》이 있다.

45 옥중서신: 저항과 복종

디트리히 본회퍼 복있는사람 2016 종교	230.044092 B714 016가
------------------------------	----------------------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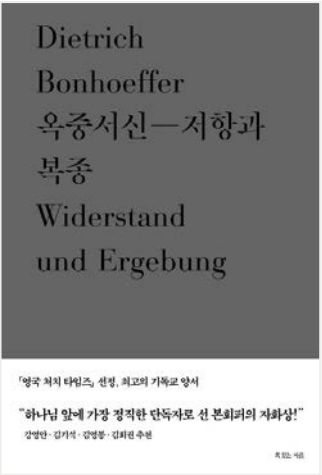
디트리히 본회퍼 대표작 시리즈 제3권 『옥중서신-저항과 복종』. 디트리히 본회퍼 서거 70주년, 본회퍼 당대와 서거 직후에 출간된 초판(독일어 원문)을 토대로 본회퍼 본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으며, 오랫동안 본회퍼 관련 저작들을 번역해 온 역자들의 수려하고 역동적인 번역으로 본회퍼의 삶과 신학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저자 소개

저자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1906년 독일 프로이센 브레슬라우에서 태어나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로 살았다. 1927년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1930년에 베를린대학에서 교수 자격을 취득했으며, 목사 안수를 받기 전 미국 뉴욕의 유니온 대학 신학부에서 수학한 후 독일로 돌아가 강의와 목회 활동을 벌였다. 독일교회에 대한 나치의 간섭이 심해지자 이에 항거하는 교회저항운동에 가담했으며, 고백교회 설교자 학교에서 후진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잠시 미국에 갔을 때 주위의 강력한 망명 권유가 있었으나 이를 뿌리치고 귀국해 히틀러 암살계획에 가담했다가 1943년 체포되었고, 1945년 4월 9일 39세의 나이로 교수형을 당했다. 히틀러가 자살하기 3주 전이었다.

‘독일의 양심’이라고도 불리는 본회퍼의 치열하고도 정의로운 삶은 당시 독재자 히틀러 앞에서 침묵하던 독일교회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나라의 정의를 현실의 삶 속에 실현하고자 자신을 희생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그의 삶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큰 귀감이 되고 있다.



■ 목차
해설의 글
서문
10년 후 1943년으로의 전환에 대한 해명
부모에게 보낸 편지들
1943년 5월 15일에 있을 혼례를 위해 감옥에서 보낸 결혼식 설교문
테겔에서 1년 뒤에 쓰는 수감 생활 보고서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들
동료 수감자들을 위한 기도 1943년 성탄절
D. W. R.의 세례일에 맞춘 생각
1944년 5월
시 '과거'
시 '행불행'
시 '나는 누구인가'
시 '그리스도인이건 이교도이건'
시 '자유에 이르는 길 위의 정거장들'
이것저것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어떤 저작의 초안
시 '친구' 시 '요나'
프린츠-알브레히트-슈트라스에 지하 감옥에서 보낸 소식
시 '선한 권능에 감싸여'
부록 최후의 며칠
찾아보기
옮긴이의 글
인명 색인

46 사قم의 기도

김영봉 IVP 2012 종교	248.32 002가
-----------------------	-------------

책 소개

한국 교회의 제2의 부흥을 위해 기도의 변혁을 요청하는 책. 한국 교회의 기도 문화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깊이 있는 학문적 연구 그리고 개인적인 영적 탐구를 접목시켰다.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해주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인도해주는 참된 기도의 본질에 관하여 탐구했다.

저자 소개

저자 김영봉은 와싱턴한인교회(미국 버지니아 소재)를 섬기고 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M. Div.), 미국 SMU의 Perkins School of Theology(STM), 캐나다 McMaster University(Ph. D.)에서 연구하고 1992년부터 10년 동안 협성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쳤다. 지금은 목회멘토링사역을 통해 교회 갱신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숨어 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 「사قم의 기도를 위한 기도선집」(이상 IVP), 설교집 「이 성전을 허물라」, 「대야와 수건」(이상 복있는사람) 등이 있다. 기독교서회 100주년 기념 주석 시리즈의 「마태복음 2」를 집필했으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신약을 감수했다. 영성 목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고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두고 목회하고 있다.



■ 목차
제1부 사قم의 기도에 이르기 위한 다섯 가지 질문
제2부 사قم의 기도를 위한 두 가지 준비
제3부 사قم의 기도를 위한 다섯 가지 주제
제4부 사قم의 기도를 위한 여섯 가지 도구
제5부 사قم의 기도가 맺는 여섯가지 열매

47 소명

오스 기니스/홍병룡 IVP 2000 종교	248.4 000녀
------------------------------	------------

책 소개

온전한 소명의식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현실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무엇이며, 소명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체화되어 나타나는지를 깊은 묵상과 통찰로 풀어가고 있는 책. 부제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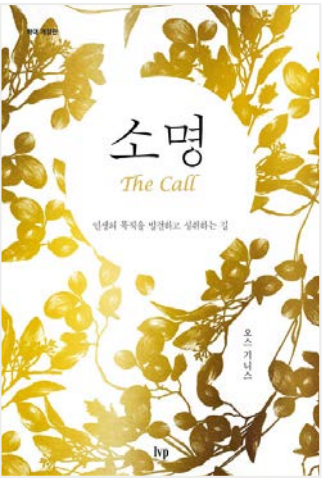
저자 소개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 강연가, 작가, 사회 비평가다. 허드슨 테일러의 동역자로 영국에 남아 중국내지선교회를 후원한 헨리 기니스의 증손자로,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중국에서 의료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 1951년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따라 추방되기 전까지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수학한 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사회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스위스 라브리에서 프란시스 쉐퍼와 함께 사역하기도 했다. 1984년 이후 미국에 체류하면서 현대 기독교와 문화를 분석하고 공공정책과 관련된 사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으며, 프란시스 쉐퍼의 사상을 계승한 최고의 문화 비평가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 교육, 출판물 목적으로 세워진 브루킹스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과 미국 내 종교의 자유를 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단체인 윌리엄스버그 헌장협회의 이사진을 지냈고, 1991년에는 트리니티 포럼을 창립하여 2004년까지 고든 맥도널드와 함께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세계 양심 헌장과 복음주의 선언을 입안했다.

유럽, 북미, 아시아 등지의 수많은 대학과 전 세계 기업 및 정계 컨퍼런스에서 강연해 온 그는, 학문적 지식과 대중적 지식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 힘써 왔으며, 특히 신앙과 공공정책에 관한 학문적 지식을 좀더 많은 청중에게 쉽게 이해시키는 데 열정적으로 참여해 왔다.

저서로는 『소명』 『소명이 이끄는 삶』 『도전받는 현대 기독교』(이상 IVP), 『풀스 톱』 『르네상스』 『인생』 『회의하는 용기』(이상 북있는사람), 『선지자적 반시대성』(이레서원) 등이 있다.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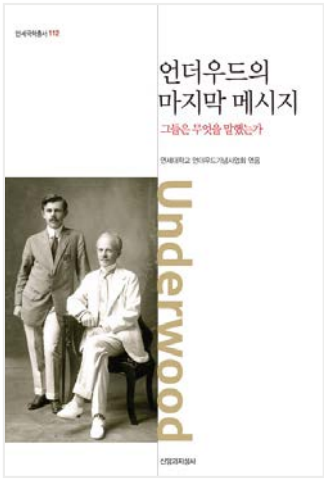
- 서론: 세계를 바꾼 한마디
1. 소명: 궁극적인 존재 이유
 2. 진정한 추구자는 그 어디에
 3. 차이점은 차이를 만든다
 4. 반문화적 소명
 5. 하나님의 웅대한 지구촌 프로젝트
 6. 나는 누구인가?
 7.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8.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9. 당신에게 걸맞은 일을 하라
 10.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전
 11.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 되게 하라
 12. 유일한 청중
 13. 불꽃같은 인생
 14. 책임성: 과연 누구에 대한 책임인가?
 15. 소명의 공동체
 16. 그 도를 따르는 자들
 17. 시대의 징표
 18. 고상한 마음이 짓는 탁월한 죄악
 19. 네게 무슨 상관이나?
 20. 더 많이, 더 많이, 더 빨리, 더 빨리
 21. 나태함이란 이름의 질병
 22. 창문이 있는 세계
 23. 신앙의 세 가지 함정
 24. 일편단심으로 사는 인생
 25. 한낮에 꿈꾸는 사람
 26. 평범한 것에서 광채를
 27.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나?
 28.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
 29. 때가 왔도다
 30. 최후의 부르심
- 인명 색인

48 언더우드의 마지막 메시지

연세대언더우드기념사업회 신앙과지성사 2016 종교	266.0092 Un56 016가
-----------------------------------	--------------------

책 소개

이 책은 한국교회의 초대 선교사 언더우드 부자의 강연문을 현대어와 국문을 통해 나누며, 한국 초대교회의 영성과 신학, 신앙의 면모를 파악하고 언더우드 목사의 신학사상과 신앙관을 새롭게 조명해 연구한다.



■ 목차

- 발간사 / 되살아난 언더우드의 외침과 메아리 · 3
- 해제 / 언더우드 부자의 마지막 육성을 경청하다 · 9
- 제1부 언더우드는 이렇게 말했다
제2부 원두우의 강도(講道)
제3부 원한경의 강연
- 찾아보기 · 348
- 부록 / 『원두우강도취집』 원본 · 355

49 아직도 가야 할 길

스캇 펙/최미양 | 올리시즈 | 2011 | 교양심리

158.1 011히7 v.1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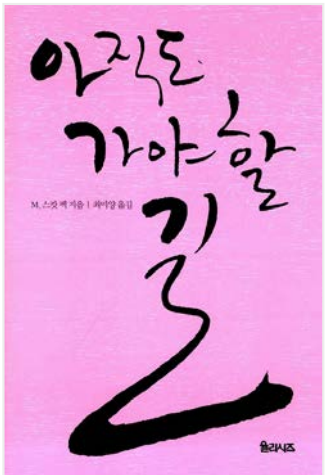
『아직도 가야 할 길』은 심리 치료 현장에서 만나 성공적으로 혹은 실패로 끝난 환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건강한 삶을 향한 진화 과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명쾌하게 분석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삶이란 온통 개인적 선택과 결정의 연속임을 알아야 하며, 완전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자유로워진다고 강조한다. 출간 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책은 삶에서 마주치는 고통과 정면으로 맞서고 그것을 극복해나가는 데 필요한 '자기훈육법'을 일깨워준다.

특히 일반적인 통념과는 반대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오는 정신질환자를 오히려 의지가 강한, 영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본다. 정신 질환과 직면하고 전적으로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야말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내 우울증과 나를 공격한 불안은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말하며, 이러한 고백이 있기까지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인내와 부정과 수용 과정을 통해, 독자는 저마다의 삶을 대입하고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삶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성장의 기회와 가능성을 시험해야 하는, 여전히 아직도 가야 할 길임을 깨달을 수 있다.

저자 소개

저자 M. 스캇 펙 Morgan Scott Peck(1936 ~ 2005)
스캇 펙의 출판 이력은 그의 진화를 반영한다. 그는 작가에서 사상가,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강연가, 영적 안내자로 진화했다. 하버드대학(B.A.)과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M.D.)에서 수학한 후, 10여 년간 육군 군의관(정신과 의사)으로 일했다. 이때의 경험은 후에 개인과 조직에서의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었고 그러한 통찰은 여러 편의 책에서 구체화된다. 1978년, 마흔두 살에 쓴 첫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은 '사랑, 전통적 가치, 영적 성장에 대한 새로운 심리학'이라는 부제가 보여주듯 '심리학과 영성을 매우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중요한 책'으로 평가되며 이후 《뉴욕타임스》의 최장기 베스트셀러 목록을 차지할 정도로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 불교도로서 이 책을 집필한 이후, 저자는 공개적으로 크리스천으로의 개종을 선언하고 인간 심리와 기독교 신앙의 통합을 지향하는 글쓰기에 매진한다. 개인뿐 아니라 조직과 사회의 영적 성장을 꿈꾸었던 스캇 펙은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비영리 교육기관인 공동체장려재단(FCE)을 만들어 평화적인 동력을 구현해보려고 노력했다.



- 목차
- 1부 훈육
- 2부 사랑
- 3부 성장과 종교
- 4부 은총
- 인명 색인

50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백춘성 | 두란노서원 | 2017 | 종교

266.0092 Sh549 017가

책 소개

『서서평』은 미혼인 서 선교사가 한국이라는 나라와 결혼하여 복음 전도자로 일생을 보낸 고결한 사랑과 헌신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서 선교사의 삶과 신앙을 접한 이들의 증언과 기록들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예수님을 알고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된 한 그리스도인이 생의 한계와 절망들을 극복하며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랑을 전하는 자요 타인을 돕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생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할지 자문하게 된다.

저자 소개

저자 백춘성(1913~2010) 장로는 전남 광주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영향으로 광주신안교회에 다녔다. 그 교회는 서서평 선교사가 주일학교 확장운동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이 교회에 부임한 이현필 전도사에 의해 저자의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모두 서서평에 대해 듣게 되고, 그에게서 믿음과 삶의 태도를 배웠다. 저자의 누이동생은 서서평 선교사가 설립한 이일학교에서 배움과 신앙을 얻어 부인조력회 회장도 역임했다. 저자는 성경을 암송하면서 자연스럽게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후 사업가뿐 아니라 문필가로도 활동하였다. 특히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감사하여 평생토록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닮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한국문인협회와 한국수필가협회, 한국크리스찬문학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수필집 외에도 여러 책을 출간했다.



- 목차
- 추천사
- 1부 나는 조선의 간호사입니다
- 2부 나는 조선의 교육자입니다
- 2부 나는 조선의 교육자입니다
- 4부 나는 조선의 돕는 자입니다
- 5부 서서평과 함께한 작은 예수들
- 6부 천국에서 만납시다
- 저자 후기 | 서서평 연보
- 사진으로 보는 서서평

2022-2023 RC 추천도서

발행인 왕현종

발행일 2022년 3월

발행처 연세대학교 RC융합대학

(우26493)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길1 청송관 101

WEB rc.yonsei.ac.kr

E-MAIL rcadmin@yonsei.ac.kr

TEL 033-760-5197

디자인 김지은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